

심 치 열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씨전〉에 나타난 현실과 초현실의
중첩성과 그 의미

- 환상성을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여 정 숙

논문개요

문학은 현실세계에서의 인간의 삶과 초현실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소설에서의 현실세계와 초현실세계는 비교적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꿈이나 죽음을 통하여 두 세계를 구분 지을 수 있으므로 고소설은 환상을 태생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고소설에서 환상은 신성화한 공간의 의미와 상징을 통해 잘 보여진다. 특히 전기소설을 비롯한 환몽구조나 도교사상의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즉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문제를 초현실의 세계에서 성취함으로써 작품 전체의 주제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도술 소설 중 역사적 전쟁체험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한 작품인 〈박씨전〉은 전대의 환상문학과 변별되는 작품이다.

〈박씨전〉은 신이하고 비범한 박씨의 일대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醜/美, 탈갑-변신 전/탈갑-변신 후, 남성/여성, 역사적 실재/허구 등의 이분법적인 환상의 표지들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설의 환상성의 표지는 환몽구조, 신성한 공간, 그리고 환상적인 소재의 논의에서 읽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이 작품에서는 상반된 요소들인 현실요소와 초현실요소를 중첩시킴으로써 환상성이 구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과 초현실의 중첩은 일정한 서사기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과 초현실의 중첩적 구조는 표면적인 중첩뿐만 아니라 당대의 현실적 삶과 주제를 밝히는데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대의 현실적 삶은 두 전란을 통한 사회적 충격과 조선시대의 사회·문화적 변화의 태동이 어우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는 두 전란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과 의식의 각성과 그것을 잠재우려는 유교 현실의 원리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즉 당대 세계관의 변화와 지속이 함께 나타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모순된 현실이 특히 여성에게는 이중적인 규범을 요구하기에 이르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당대의 삶이 〈박씨전〉에서 환상성으로 구현되고 있다.

우선 허구의 인물 박씨는 다른 고소설 작품의 주인공들과는 다른 의도를 가진 추모의 인물이다. 현실세계의 미인식의 기준을 벗어난 박씨는 신화적 잔영을 가지고 주위의 박대를 참아낸다. 박씨는 탈갑-변신을 함으로써 절대가인이 된 후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인 실재 인물 즉 남성 인물들은 활약상이 미약해진다. 그리고 박씨 외에도 기홍대 등의 여성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즉 신화적 잔존 인물인 박씨는 실패한 전쟁에 대해서 도술로 호적을 물리치고 있으며, 실재 역사적 인물들과 다른 여성인물들도 박씨의 비범함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의 초현실 공간으로는 금강산 외에도 피화당이 설정되어 있다. 피화당은 박씨가 금강산을 다녀온 후 본격적인 도술을 발휘하는 공간이다. 즉 금강산을 기점으로 공간이 고정되면서 호적을 물리치는 공간이다. 즉 이시백의 집이라는 현실 공간 속에 초현실 공간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고소설의 일반화된 초월세계의 공간과는 다른 관념적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또 피화당에서 행해지는 도술이 실제의 전란체험의 재현이라는 점은 실천적·실행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작품에서 환상적인 서사기법은 인물과 공간의 구조 외에 사건의 전개양상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난다. 사건은 대부분 도술 담으로 전개되어 지고 있는데, 도술 주체는 여성 인물 박씨이다. 탈갑-변신 전의 도술은 박씨가 현실 세계에서 미인이 됨으로써 일단락 되고 있다. 탈갑-변신 후의 도술은 박씨가 현실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과 함께 전개되고 있다. 즉 사건의 연쇄 구조와 병치 구조는 도술을 통한 민중의 대리만족과 유교 사회에서의 여성의 현실이 긴밀하게 짜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남성중심의 유교 사회의 지속과 여성욕망의 발현이라는 변화가 함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병자호란의 참상에 대한 민중적 염원은 박씨라는 신화적 잔존 인물을 통해 작품 속에 투영되어 있다.

환상 문학은 단순한 공상이나 망상 혹은 상상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의 발현 이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양식이다. 소설은 현실 상황의 단순한 재현만이 아니라 현실을 뒤엎는 역설적 꿈의 재현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작가는 당대 사회의 여건에서 재현할 수 있는 여성성 즉 여성의 존재가치를 문학 작품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는 점에서 독자는 환상적인 흥미와 함께 여성 욕망의 발현 양상도 함께 인식하였다고 하겠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1
2. 연구사 검토	6
II. 현실과 초현실의 중첩적 구조	11
1. 인물을 통해 본 중첩적 구조	14
1) 신화적 잔영과 유교적 표상	14
2) 美·醜에서의 낯설음과 경이로움	21
3) 도술의 연속성에 따른 심화 및 확장성	27
2. 공간을 통해 본 중첩적 구조	33
1) 공간 격리를 통한 영역의 축소화	33
2) 공간 이탈을 통한 영역의 고정화	40
3. 사건을 통해 본 중첩적 구조	44
1) 개인적 욕망에 따른 연쇄	45
2) 민중적 욕망에 따른 병치	47
III. 중첩성이 갖는 환상적 흥미와 주제적 구현	50
1. 민중의 대리만족과 보상심리	50
2. 여성 욕망의 발현과 유교적 이념과의 타협	54
IV. 결론	59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현실세계를 떠나 환상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삶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문학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신화나 전설이 이러한 증거이다. 사람들이 추구하던 설화의 세계는 엄밀히 말해 환상의 세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현실세계는 공간과 시간이 분화되어 있는 세계다. 따라서 현실계의 존재는 공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형의 존재이고, 공간과 함께 생기는 시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시간의 측정이 가능한 순간존재다. 비현실계는 일상적 경험으로 실증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로 공간과 시간이 미분화되어 있는 무공간, 무시간이다.¹⁾

설화뿐만이 아니라 고소설에서도 현실이 아닌 세계, 즉 비현실적 시·공간 안에 초현실적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관념적 진리와 경험적 현실간의 모순에 대해서 민중들이 인식론적(認識論的) 좌절을 깊이 체험하면서 야기된 하나의 반영물이다. 즉 초월적 세계라는 관념은 선불사상(仙佛思想)이나 민간신앙의 오랜 전통이었으며, 문학에서 유교의 현실 일원론적 세계관을 초현실계의 인식론적 세계관으로 확대시킨다. 초현실적 세계관은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 전개된다.

환상(fantasy)이란 객관적 경험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및 그 사건을 목

1) 최운식, 「심청전 연구」, 집문당, 1982, 199면.

도한 사람의 심리를 일컫는다. 환상적 사건이란 우리 경험적 현실세계의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고 인과적 필연을 벗어나 발생한 사건을 뜻한다. 환상(fantasy)은 phainein으로부터 온 말이다. 이것은 '표상하기'라는 뜻이다. 곧 '눈에 보이게 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눈앞에 보이게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표상하기'라는 뜻에서 판타지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즉 존재와 비존재의 틈새에 자리한다는 속성이 담겨 있다.²⁾ 환상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기반하고 또 그것에 의해 지배되는 이야기이다. 즉 환상은 사실에 반대되는 조건을 오히려 '사실' 그 자체로 변형시키는 서사적 결과물이다.³⁾ 그러므로 환상은 당대의 현실이 어떠한가에 따라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환상이 문학에서 나타나는 형식도 당대 현실 상황과 호흡하고 있을 것이다. 환상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환상이 현실세계와 초현실 세계에서 그 교접양상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진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특히 문학에서의 환상은 작품 속의 공간 구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환상은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에 있어서 '꿈'이 두 세계를 견고하게 구분 짓는다면, "안과 밖"이나 '이쪽과 저쪽' 등은 현실의 틈 사이에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

2) 김성룡(c), 「고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제15집, 고소설학회, 2003, 8면.

3) 로지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4면.

4) 환상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 중 신성환 (「낯설게 읽기의 새로움-최근 소설들에 나타난 환상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1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1, 109면)은 “ ‘환상적’(fantastic)이라는 어원은 ‘눈에 보이게 하다’, ‘보여주다’에서 유래한다. 그것은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감추어진 것을 눈앞에 보이게 하는 것이다. 1차 세계·현실이 가시적인 세계인데 비해, 2차 세계·환상은 가시적인 세계의 겹 뒤편에 존재한다. 2차 세계는 현실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데에서부터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2차 세계는 독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세계라기보다는 그것이 만들어진 현실과 호흡하고 대화함으로써 스스로가 규정된다고 하겠다.”고 하였다.

고소설에서 현실세계와 초현실세계는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고소설에서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도 역시 상대적이어서, 초현실세계를 현실세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초현실세계의 성격을 알 수 있고 현실세계를 초현실세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실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고소설에서는 인간은 꿈이나 죽음을 통하여 공간성과 시간성이 소거되거나 신성화를 통해 신성 공간에 도달할 수 있다. 고소설에서 현실과 초월적 세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성공간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소설의 요소로서의 배경적 의미뿐만 아니라 소설 작품 전체 속에서 기능 하면서 작가의 상상력이나 주제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설에서 현실과 초월세계의 관계는 환상성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고소설은 태생적으로 환상을 전제하고 있으며, 환상은 환몽구조나 도교사상의 작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의 경우,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문제를 환상의 세계인 이계에서 성취한다. 환몽소설인 「구운몽」은 주인공이 꿈을 통해 천상계에서 유가적 현실의 삶을 살다가 각몽 후 불교로 귀의하는 작품이다. 도교사상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도술소설들은 설화의 잔재를 수반하기 때문에 환상성을 수반한다.⁵⁾ 특히 도술소설 중 ‘탈

5) 박명순(「조선후기 전쟁체험 신선류소설의 응진논리」, 『한국언어문학』 제38집, 한국언어학회, 1997, 197면)은 글의 서두에서 “우리나라 고소설 가운데 전쟁문제를 다루면서도 신선설화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작품은 허균의 「장산인전」, 「장생전」과 신광수의 「김승전」,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정광주피란록」, 「매화전」 등이 있다.”고 밝혀 놓았다. 또한 병자호란을 제재로 한 소설로서 「박씨전」과 함께 「임장군전」 있다. 민공기(「창작군담소설의 장르사적 위상정립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성오 소재영 교수 환력기념논총 『고소설사의 제문제』, 1993, 집문당, 611~612면)는 “이 두 작품은 다 같이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으며, 오랑캐에게 항복한 국치를 정신적으로나마 복수해 보려는 민족의 비원이 잘 나타나 있고, 역신 김자점을 고발 단죄한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다만 「임장군전」이 실제인물인 주인공 임경업을 등장시켜 현실적인 세계를 표현한 데 비해, 「박씨전」은 가공적 인물인 박씨라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비현실적 표현을 한 점이 이채롭고 재미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갑-변신'이라는 화소로 환상성이 짙게 투영되면서 역사적 전쟁체험이 구체적으로 형상화 한 작품은 〈박씨전〉이다.⁶⁾

국문소설 〈박씨전〉은 조선후기 문학과 문화의 변화 속에서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이러한 양상은 유교가 중심의 조선시대에서 도불습합(道佛摺合)의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서민층 위주의 소설문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고전 문학은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반영시키는 일면, 현실적인 삶이 자아내는 욕구 불만을 정화(淨化)하려는 꿈과 이상을 묘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상적 바탕이 도교사상(道敎思想) 속에 충일되어 있었다.⁷⁾ 〈박씨전〉의 이본을 살펴보면, 목판본이나 한문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고, 오직 필사본과 일제강점기에 나온 개작본이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작품들에서 환상성은 작품의 공간 층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만복사저포기〉는 수평적 이동, 〈구운몽〉은 수직적 층위, 〈전우치전〉은 현실세계에서 환상이 발생한다. 〈박씨전〉의 경우 현실 속에 중첩된 공간으로서 피화당에서 초현실적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현실과 초현실이 교접하면서 갖게 되는 중첩된 의미가 환상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서사기법에 기능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소설에서 서사기법으로서의 환상적 장치와 당대 현실과 독자의 요구에 관심을 갖고 주제에 접근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이 작품의 서사구조의 분석을 통해 인물, 공간, 사건을 축으로 현실과 초현실의 중첩성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품에서 분석

6) 인간이 현실세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력성은 전쟁일 것이다. 도술은 초인간력의 발현으로서 인간의 현실적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상상력의 작용이다. 본고는 이 두 지점이 교접하는 양상 속에 숨겨진 의미에 접근하고자 한다.

7) 한국도교문화회, 『도교문학연구』, 푸른사상사, 2001. 303면.

되는 현실과 초현실의 양상을 밝힘으로써 환상성이 의미하는 당대인의 현실적인 삶과 주제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II장에서는 먼저 〈박씨전〉의 서사를 순차적으로 분석하고, 인물, 공간, 사건을 축으로 현실과 초현실의 중첩성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이에 각각의 항에서는 탈갑-변신 화소와 박씨의 행위에서 보여지는 신화적 잔재 요소와 유교적 표상, 추모에서 미모로의 변신 자체의 환상, 그리고 여성인물과 역사적 인물이 도술의 연속성에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 보겠다. 다음 2절은 공간을 통해 본 중첩적 구조를 분석하겠다. 먼저 박씨를 중심으로 표면적인 공간의 전이과정의 특징을 살핀 다음, 박씨가 격리됨으로써 축소화된 공간의 의미와 이탈을 통한 공간의 고정화가 상징하는 것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 3절은 사건을 통해 본 중첩적 구조이다. 사건의 전개는 탈갑-변신을 기점으로 연쇄·중첩의 구조와 병치·중첩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 보겠다.

III장에서는 II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첩성이 갖는 대중적인 환상적 흥미가 주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서사기법상의 기능이 환상성을 통해 여성욕망의 측면과 민중의 측면에서 어떻게 주제화로 귀결되며 수용되는지를 살펴보겠다.

본 글의 자료는 현전 최고본(最古本)이자 선본(善本)으로 인정되는 필사본인 고려대 도서관 소장 〈박씨전〉이다.⁸⁾

8) 김기현 역주, 「박씨전」,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 1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2. 연구사 검토

〈박씨전〉에 대한 연구는 이본 연구, 작품의 구조에 대한 연구, 주제나 사상에 관한 연구 등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여성중심적 시각에서 허구의 여성인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논의가 확대되고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이본에 대한 연구는 박윤재⁹⁾가 시작하였으며, 이후에 김기현, 신동일, 사재동, 김대숙 등이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¹⁰⁾ 김기현은 이본 14종을 필사본·활판본·교주본으로 나누어 살피고, 그 계보를 고대본계(손낙범본, 대창본)와 한성본계(세창본, 덕흥본)로 구분하였으며, 그 차이점으로 후자에는 시부의 조복 짓는 이야기, 선계의 치마와 용궁의 저고리 자랑, 금봉채로 술잔을 갈라 마시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였다. 고대본 〈박씨전〉(필사본, 1835년 혹은 1895년)을 最古本이자 善本으로 추정하고, 작품명칭을 〈박씨전〉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작자를 여성으로 보았다.¹¹⁾ 그리고 김대숙은 그 동안에 소개된 이본 등을 포함하여 새로 10여종의 이본을 소개하면서, 이시백이 평범한 출생을 하는 계열과 기자정성의 결과로 출생을 하는 계열로 나누어 작품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이정미와 이문규의 최근의 논의가 있다.¹²⁾

9) 박윤재, 「박씨부인전 이본고」, 『어문논집』 1, 중앙대, 1960.

10) 김기현(a), 「박씨전 연구」,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4.

신동일, 「이조 전쟁소설 박씨전 연구」, 『육사논문집』 6, 육군사관학교, 1968.

사재동, 「〈박씨전〉의 형성과정」, 『장암지현영선생고회기념논총』, 대구:同간행위원회, 1980.

김대숙, 「우부현녀설화와 박씨전」,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94.

11) 김기현(a), 앞의 논문.

_____ (b), 「박씨전의 텍스트와 명칭문제」, 『우리문학연구』 9, 1992.

12) 이정미, 「박씨전의 서지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다음으로 〈박씨전〉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성현경이 〈박씨전〉은 〈박부인전〉과 〈이시백전〉이 부자연스럽게 결합된 소설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¹³⁾, 대체적으로 전·후반을 독립된 이야기로 보는 입장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통용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김미란, 정명기 등은 전·후반이 유기적으로 짜여져 있다고 하였다.¹⁴⁾ 한편, 신태수는 구성의 통일성 여부에 관한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¹⁵⁾ 이어서 최진형은 ‘혼인-변신-활약’을 문체적 사건으로 보았으며, 김현희는 가정내의 갈등과 국가적 차원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완결된 형식의 유기적 구성을 갖추었다고 하였다.¹⁶⁾

다음으로 〈박씨전〉의 주제나 의미에 대한 연구로, 일찍이 김태준은 외적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하여 조선 여성 고유의 의열한 정신을 발휘시키고자 하는 인공미에 있다고 하였다.¹⁷⁾ 또한 김기동, 장덕순, 신동일 등의 논의도 김태준이 언급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¹⁸⁾ 또한 작품의 주제나 사상과 관련하여 탈갑·변신에 의미를 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김미란은 박씨의 변신이 작품 전·후반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소녀의 성년식과 입사식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¹⁹⁾ 또한 박씨의 변신은 곧 조선 여성들의 열등감의 극복이라고 하였다.²⁰⁾ 후에 김장동은 변신의 의미를 정신적인

이문규, 「〈박씨전〉의 미학적 고찰」, 『태릉어문연구』 5·6, 서울여대, 1995.

13) 성현경, 「여걸소설과 ‘薛仁貴傳’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62-63, 국어국문학회, 1973.

14) 김미란(a), 「박씨전 연구」, 연세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_____ (b), 「박씨전과 변신의 모티브」, 『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정명기, 「여호걸계소설의 형성과정연구」, 연세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15) 신태수, 「〈박씨전〉에 나타난 현실과 이상의 관계」, 『영남어문학』 25집, 1994.

16) 최진형, 「박씨전의 이념적 구조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7, 성균관대, 1996.

김현희, 「박씨전의 주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7)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교주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8)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19) 김미란(a), 위의 논문.

_____ (b), 위의 논문.

승리감과 민족적인 우월감의 정화에 있다고 하였으며²¹⁾, 백명자는 박씨의 삶 전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때 천상계, 지상계의 순환이 그 하위순환으로 나타나 순환의 연속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박씨의 변신은 미모를 되찾게 되는 변신순환과 천상계 선녀로서 득죄로 인해 지상계에 적강하여 지상계에서 인간으로서 삶을 누리다가 천명을 천상계와 지상계의 순환으로 보았다.²²⁾ 이어서 정상진은 박씨의 신분 격상의 계기로 이해하였다.²³⁾ 이원수는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미추(美醜)에 집중했다는 점을 보완하여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와 당대의 과도기적 의식 혼란을 도출해 냈다고 하였다.²⁴⁾ 이외에도 박씨의 변신 또는 탈감을 종교적·신화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도 있다. 정정현은 탈감을 중심화소로 이해하여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박씨의 추모와 피화당을 중심으로 의미를 살펴보았으며²⁵⁾, 경일남은 박씨의 탈감을 속과 성을 구분짓는 종교적 기능으로 이해하였다.²⁶⁾

다음은 본 논문의 연구방향과 유사한 고전소설에서의 환상성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살펴보겠다. 고전소설에서의 환상성에 대한 연구의 초기에는 주로 도선사상에 관한 연구나 환몽소설의 연구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환상성은 고전소설에 나타난 도선적 요소, 환몽소설과 전기소설의 꿈이나 이계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즉 고전소설의 구조가 환상성의 논의의 대상이었다.²⁷⁾ 이와 같이 부분

20) 김미란(c), 「고대소설에 나타난 변신모티브 연구」, 연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21) 김장동, 「박씨전 논고」, 『한양어문연구』 3, 한양대 한양어문연구회, 1985.
 22) 백명자, 「박씨전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85.
 23) 정상진, 「인물중심으로 본 박씨전의 구조와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8·9, 한국문학회, 1986.
 24) 이원수, 「〈박씨전〉에 나타난 여성관」, 『어문학』 제71집, 한국어문학회, 2000.
 25) 정정현, 「박씨부인전 연구-추모 모티브와 피화당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람어문연구』 7, 창원대 국어국문학회, 1990.
 26) 경일남, 「박씨전의 불교적 성격」, 『어문연구』 14, 충남대 어문연구회, 1985.
 27) 정학성, 「몽유록의 유형적 특질과 역사의식」, 『관악어문연구』 2, 1977.

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고전소설의 환상성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 구조적으로 접근하려는 연구²⁸⁾와 단일 작품의 환상성을 밝히려는 연구로 발전하였다.²⁹⁾

특히 최근에 신세윤³⁰⁾은 도술소설에서 환상성과 작품의 미학적 가치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박씨전〉과 〈전우치전〉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작품의 도술사건과 도술공간에 주목하여 환상성의 미학적 가치와 주제의식과의 관계를 밝혔다. 이 논문은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인물, 도술담, 비현실적 공간 등의 요소를 각각 추출하여 환상적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분석하였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작품에서 환상의 표지만 드러날 뿐 기법

정확성, 「몽유담의 우의적 전통과 개화기 몽유록」, 『관악어문연구』 3, 1978.

차용주, 『몽유록계 구조의 분석적 연구』, 창학사, 1979.

김성룡(a), 「한국고전소설의 환상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5.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박희병, 「『금오신화』의 소설미학」,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28) 김성룡(b), 「고전소설의 환상 미학」, 양포이상택교수 환역기념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김경수·김성룡 공저, 「고전 서사문학을 중심으로 본 환상의 미학적 특성 연구」, 『한국고전비평』, 중앙대학교출판부, 1995.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환상적 표상의 몇 가지 층위」, 『성심어문논집』 제25집, 성심어문학회, 2003.

강상순, 「고소설에서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29) 신세윤, 「고전소설 속의 환상성 연구-「전우치전」과 「박씨전」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조혜란, 「민중적 환상성의 한 유형-일사본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최기숙, 「귀신의 처소, 소멸의 존재론-『금오신화』의 ‘환상성’을 중심으로」, 제24차 『돈암어문학』, 정기학술발표대회, 2003.

30) 신세윤, 위의 논문 (또한 조혜란도 위의 논문에서 도술담의 전개방식과 도술 주체의 인물 형상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이 보여주는 환상 미감이 역동적·유희적·원초적임을 밝혔다.)

적 측면에서의 환상성을 밝히는데에는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또 이 연구는 당대의 소설 유통 현황과 관련한 독자의 수용측면을 중시하여 접근한 방식³¹⁾이며, '인물-공간-사건'의 분석에 있어서 유기적 관계를 밝히는 데 미흡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박씨전〉을 대상으로 하되, 소재적 측면의 환상성이 주제로 형상화 될 때 서사기법적 특징이 환상성에 어떻게 내재하게 되는지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인물-공간-사건'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서사기법적 특징을 밝히는데 주력하면서 환상성이 의미하는 당대인의 현실적인 삶과 주제를 밝히겠다.

〈박씨전〉은 허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설화적 구성요소가 가미된 작품이다. 이에 본고는 이 작품이 초현실적 요소를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작품에 나타나는 현실과 초현실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31) 최근에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논의 중 류준경(『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1~13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35면)은 여성영웅소설의 출현동인 반성과 함께 오히려 남성독자와의 관련성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영웅소설 내부의 장르운동의 양상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논문의 요지는 “보수적인 유교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는 영웅소설의 서사세계에 여성영웅이라는 존재가 수용됨으로써 새롭게 형성된 서사세계는 현실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자기 모순적 지점을 보여주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러한 “서사세계의 구축”을 문학사적 의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II. 현실과 초현실의 중첩적 구조

환상문학 작품에서 환상은 현실세계와 초현실세계에서 그 교접양상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진다. 대부분의 환상 문학 속에서 여성은 존재 기반의 취약함 때문에 절대적 타자로 주변화되어 등장한다. 특히 환상문학에서의 여성의 환골탈태적 변모는 여성적 욕망이 표현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³²⁾, 초현실세계는 당대 현실을 읽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박씨전〉은 주인공 박씨의 일대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란의 체험을 환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작은 삽화들의 결합으로 서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본마다 내용의 강조는 조금씩 다르지만³³⁾, 큰 줄거리는 대동소이하다. 〈박씨전〉의 서사를 순차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명나라 승정 연간에 조선국의 재상 이득춘에게 아들 시백이 있었다.
- (2) 이득춘은 지인지감이 있는 인물이며, 이시백도 문(文), 계교(計巧), 술법(術法)이 장안에 제일이라.
- (3) 이득춘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금강산 박처사의 바둑두기, 옥저불기의 재주를 보고 탄복한다.

32) 환상문학에서 여성은 여전히 가부장제적·남성적 시각에 의해 나누어진 ‘악녀/성녀’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상문학은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비판의 소지가 많다.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앞의 책, 27면 참조.

33) 김기현은 이본 14종을 필사본·활판본·교주본으로 나누어 살피고, 그 계보를 高大本係(孫洛範本, 大昌本)와 韓城本係(世昌本, 德興本)로 구분하였으며, 그 차이점으로 후자에는 媿父의 조복 짓는 이야기, 仙界의 치마와 저고리 자랑, 금봉채로 술잔을 갈라마시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였다.

김기현(a), 앞의 논문.

- (4) 박처사는 이득춘에게 자신의 딸과 시백의 혼인을 청한 후 금강산으로 떠난다.
- (5) 이득춘은 시백과 함께 금강산 박처사를 찾아가 열러 날 만에 박처사를 만난다.
- (6) 이득춘은 박처사의 딸과 시백의 혼례를 치른 후 여관에서 신부의 용모가 흉측함을 알게 된다.
- (7) 이득춘은 집안 사람들에게 신부를 잘 섬기라고 당부하지만 부인, 시백, 비복들까지 박대한다. 박씨는 밥만 먹고 잠만 잔다.
- (8) 시백의 모부인(母夫人)이 박씨에게 밥을 적게 주라고 하고, 박씨는 후원 협실에서 계화와 함께 지낸다.
- (9) 박씨가 조복을 하루만에 짓자, 임금은 박씨를 박대치 말라며 매일 서말 녹(祿)을 제수한다.
- (10) 박씨는 이득춘에게 비루먹은 말을 300냥에 사게 한다.
- (11) 박씨는 계화를 시켜 후원 협실 사방에 나무를 심고 오색토로 복돋우고, 물을 주어 나무를 무성하게 한 다음, '피화당'이라 이름을 짓는다.
- (12) 박씨는 3년 동안 기른 말을 중국의 칙사에게 3만냥에 팔게 한다.
- (13) 박씨는 연적 꿈을 얻은 후, 연적을 시백에게 전하여 시백이 과거에 급제한다.
- (14) 박씨가 이틀만에 금강산에 다녀온다.
- (15) 박씨는 박처사의 명으로 허물을 벗고 절대가인으로 변하고 시백과 동침한다.
- (16) 박씨는 재상의 부인들 앞에서 비단 도술과 술잔 도술을 부린다.
- (17) 시백이 평양감사, 병조판서를 지낸 후, 임경업과 함께 남경에 가서 호국을 구원하고 돌아온다. 시백은 우의정, 경업은 도원수에 이어 의주부윤에 제수된다.

- (18) 호왕이 왕비의 천기(天機)로 조선의 신인(神人)과 임경업을 죽이라며 자객 기홍대를 조선에 보낸다.
- (19) 박씨는 기홍대를 예측하여 피화당에서 도술로 물리친다.
- (20) 박씨는 명월부인으로 봉해진다.
- (21) 호왕이 왕비에게 요책을 물은 뒤 용골대·울대 형제로 하여금 3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범하게 하면서, 이시백의 집 후원은 범치말라고 한다.
- (22) 박씨는 호군의 침입을 예측하였으나 간신 김자점의 반대로 막지 못한다.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하고 박씨는 일가친척을 피화당에 피난시킨다.
- (23) 용골대가 피화당을 범하나 실패하고 계화에 의해 저지당하자 자결한다.
- (24) 용골대는 강화를 받고 울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피화당을 습격하는데 실패하자 왕대비·세자·대군을 데리고 회군하려 한다.
- (25) 박씨가 계화를 시켜 왕대비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자, 호장은 세자·대군을 데리고 백배사례하고 돌아간다.
- (26) 임경업이 의주에서 호병을 만나 화친한 전지를 보고 사라진다.
- (27) 박씨는 절충부인(折衝夫人)으로 봉해지고 후에 자녀 11남매를 두어 90세까지 살았다.
- (28) 박씨는 천상선녀(天上仙女)로 박처사 집에 적강(謫降)한 여중군자(女中君子)이다.

이 작품은 위에서 요약했듯이 ‘인물-박씨, 공간-피화당, 사건-호적의 침입’을 중심으로 서사가 펼쳐지고 있다. 위의 서사단락 중 (15)는 박씨가 탈갑-변신을 하는 내용이다. 이 단락은 작품의 전·후반을 이끌고 있는 기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반부의 호적의 퇴치 부분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화소이다. 특히 피화당이라는 공간은 박씨가 탈갑-변신 전에 만든 신성한 공간이다. 위의 서사구조를 토대로

작품의 중첩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인물, 공간, 사건에 대하여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인물을 통해 본 중첩적 구조

소설에 있어서 인물은 주제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작가가 어떤 시각으로 인물의 성격을 만드느냐는 작품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작품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것은 인물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물에 드러난 표상보다는 어떤 행위를 거치고 어떤 목적으로 사건이 전개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 작품에서 전·후반의 기점인 박씨의 탈갑-변신이 매우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박씨의 추모와 미모의 의미, 탈갑-변신과 박씨의 행위에 잔재해 있는 신화적 요소, 그리고 박씨가 행하는 도술의 성격을 통해 서사구조를 통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신화적 잔영과 유교적 표상

이 작품에서 탈갑-변신의 정서적 환기의 특성은 고소설에서 흔하지 않은 신화적인 잔재의 발견과도 일맥상통한다.³⁴⁾

34) 〈박씨전〉을 신화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근의 논의 중 김나영(『신화적 관점으로 본 〈박씨전〉 소고』, 『고소설연구』 제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은 이 작품의 서사를 당 신화의 서사 구성과 대응되는 점, 박씨가 변모된 여성신의 형상화된 인물이라는 점을 밝혔다. 더 나아가 현실의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원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을 당신의 존재에서 찾으려 한 민중의 심리가 서사 구성에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

신화는 성스럽고 엄숙한 서사였으나 이른바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로 점차 내려오면서 환상 속에 그 참모습을 감추게 된다. 신화의 참모습, 참된 의미란 무엇인가? 그것은 삶의 진상, 우주의 비의(秘義)이다. 따라서 환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허무맹랑 그 자체가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환상은 그러나 평면경처럼 곧바로 사물을 되쏘는 것이 아니라 곡면경처럼 진실을 경처럼 진실을 기하게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준다. 환상의 이 아나모르포즈(Anamorphose)적인 반영원리, 그것은 두 개의 세계에 대해 작동한다. 하나는 실재 너머 불가해한 상상계에 대해서이고 또 하나는 생동적인 현상계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환상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세계는 신화적 인간에게 있어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것이다. 다시 말해 신화적 인간은 현상계 못지 않게 상상계도 생생한 현실로서 체험한다. (중략) 신화가 진실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환상으로서 느끼게 된다. 즉 일상의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가 並置되어 이율배반의 다른 코드로 읽힐 때 일상적 견지에서 우리는 주저감, 경이감, 허구성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이때의 텍스트 혹은 내용은 신화가 아니라 환상인 것이다.³⁵⁾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환상은 감춰진 진실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따라서 신화는 항상 존재하며, 한 민족의 계속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비연속적인 사건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는 환상이 곧 신화이며, 신화 속에는 개인과 민족의 욕망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씨전〉의 경우 탈감-변신은 일상적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사건으로 신화적 환상성의 잔영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박씨의 추모는 탈감-변신 전의 사건들에 있어서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박씨는

다.

35) 정재서, 「《山海經》의 소설적 수용(1)-동방삭에서 보르헤스까지-」, 『중국어문논집』, 중국어문연구회, 1998, 47~48면.

추한 외모로 인해 박대를 받고 있는 한편 자신의 능력을 거리낌없이 드러낼 수 있었다. 추한 외모는 비범함을 나타내는 표면적 장치인 것이다. 박씨의 비범함이나 신이성을 보여주는 표상은 추한 외모 이외에도 박씨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박씨전〉에는 다른 고소설과는 달리 독특한 신화적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씨전〉에서의 박씨의 추모는 生來的으로 소지한 것이므로 당대 일반적인 여인상과는 성격이 다른 신화적 환상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씨전〉에서 박씨의 구체적인 행위에서 보여지는 신화적 잔재는 다음과 같다.³⁶⁾

박씨의 행위	신화적 잔재
(7)밥만 먹고 잠만 잠	태모신적 본능, 대식 화소. ³⁷⁾
(9)조복짓기.....	대의 화소. ³⁸⁾
(10), (12)양마득금	수렵사회의 여신적 잔영. ³⁹⁾

36) 위의 본문에서의 ‘신화적 잔재’ 항목은 김미란(“4. 소설에 나타난 여성변신”, 『한국소설의 변신논리』, 태학사, 1998, 135면~139면)의 논의를 참조하여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내 보았다.

37) 김현선(『한국의 창세신화』, 도서출판 길벗, 1994, 42면~55면)은 창세신의 거신적 성격의 기본적 화소로 대의(大衣), 대식(大食), 배설(排泄), 거근(巨根)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식, 배설, 거근은 왕성한 생산력을 지닌 상징적 표상이라 할 수 있으며, 대의의 경우는 손수 자신의 옷을 장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옷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것은 옷이 시급하게 요청되었거나 옷이 신성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씨전〉에서 박씨가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것은 대식 화소로 보았으며, 시부의 조복짓기의 경우 박씨 자신의 옷은 아니지만, 시부의 조복이 시급하게 필요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대의 화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8) 위의 37)의 주석 참고.

39) 최원오(「한국 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위계 전변(轉變)과 윤리의 문제」, 『동아시아 여성신화』, 동아시아고대학회, 집문당, 2003, 373면)는 “만족의 신화 〈뒤룽거거〉에서 뒤룽거거는 말타기·활쏘기·사냥·어렵 등을 잘하는 여자 족장인데, 마을 사람들을 괴롭

- (11)피화당 가꾸기 우주의 섭리에 부합.
- (13)연적을 시백에게 전함 우부현녀설화.⁴⁰⁾
- (14)금강산 다녀옴 영웅적 능력 발휘.
- (15)탈갑-변신 국조신화적 잔영.⁴¹⁾
- (16)~(28)도술, 예측 영웅적 능력 발휘.

이상의 과정을 통해 박씨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신화적 잔재를 살펴보았다. 위의 신화적 잔재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박씨는 태모신적 본능은 탈갑-변신 전

히는 요괴(妖怪) 봉세떼를 물리치고 신이한 화살을 하나 남기고 백두산으로 날아가 뒤를 어머니신이 된다. ‘말타기·활쏘기·사냥·어렵 등의 능숙’은 농경사회 이전의 수렵·어렵사회에서 사냥의 풍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마득금 화소의 경우 수렵과 유목시대의 여신적 본능이 후대의 문화의 영향으로 명마감별능력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 40) 온달전승은 『삼국사기』에 수록된 문헌상 最古의 여성우위설화다. 김열규(『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서울 一湖閣, 1971, 47면)는 〈박씨전〉에서 박씨가 비루먹은 사 길러 3년 뒤에 3만냥을 받고 팔았다든가 혹은 현몽의 백옥연적으로 그의 남편으로 하여금 장원 급제하게 한다든가 하는 모티브들은 溫達傳承의 양마 모티브와 並行關係에 있다고 하였다.
- 41) 윤경수(『고소설과 국조신화의 변신모티프 연구』, 『비교문화연구』 9,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88, 90면)는 “박씨전 이외에도 추모로 인한 탈각형에 해당하는 모티프는 수박형태의 등근 모습에서 미남자로 변신한 『김원진』, 역시 등근 방울 형태에서 미인이 되는 『금령전』, 천상에서의 죄로 인해 송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선관의 도움으로 송아지의 허물을 벗고 미남자로 변신했다는 『금우태자전』, 또 허물을 벗고 본형을 찾는다는 모티프는 『형산백옥』 등이 있다. 이들은 천상에서의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해 입사식에서의 수난을 겪은 다음에 완인이 되기도 한다. 이들 소설의 주인공들은 허물로 인해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그들의 탄생과 운명이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외모의 탈각 모티프는 설화상에도 발견되고 있는데, 박씨와 백옥의 탈각 모티프는 혁거세비 알영의 입술 부분의 탈각과 추녀의 미인 설화 등에서 그 영향관계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씨전〉에서 박씨가 허물을 벗는 것은 국조신화에서 연원된 것이고, 변신담은 보조적인 관계로 생각된다.

까지 변이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박씨가 탈갑-변신 후에는 신화적 잔재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비범성을 지닌 박씨가 예언과 도술로 호적을 퇴치하고 있는 것이다. 박씨는 허물을 벗은 후에 계화에게 “니 간밤의 허물을 버섯시니, 더감게 옛즈와 옥함을 쓰쥬옵쇼셔 흐라.(175면)”라고 말한다. 따라서 탈갑-변신 이후에는 아직 버리지 않은 태모신적 본능으로 가부장권 사회에서 전란을 예측하며 도술로 퇴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위에서 살펴본 신화적 잔재와 더불어 유교적 현실을 나타내는 표상을 함께 가지고 있다.

(1)~(7) : 박씨는 추모의 얼굴로 태어났다.

(8)~(14):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박대를 피해 격리된 생활을 한다.

(15) : 절세미인이 된다.

(16)~(28) : 병자호란에 대공을 세우고 국왕으로부터 총렬부인의 칭호를 받는다.

즉 박씨는 얼굴이 흉측했기 때문에 시집 온 3년 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에게 괘시를 받았고 피화당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된다. 박씨는 박대와 격리된 생활을 겪은 후 절세미인이 된 후에는 병자호란에 대공을 세워 신분상승을 이룬다.

그러므로 박씨가 행한 ‘조복짓기’와 ‘양마득금’, 그리고 ‘연적 전하기’ 등의 내용은 가부장권 사회에서의 유교 원리의 여성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조복짓기의 경우 여성의 가사 영역이고, 양마득금의 경우는 여성이 가정의 경제력까지 떠맡아야 되는 것, 그리고 연적으로 인한 남편의 과거급제는 남성 중심사회에서의 여성의 현실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모라는 것은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 따라서 남성중심주의적 시각의 유교 사회는 어떤 여성상을 추구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이 추모에서 미모로 변신한 화소의 이해에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여성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의문, 즉 외모지향적인 측면이며, 둘째는 여성이 어떤 존재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의 윤리·도덕적인 측면이다.

우선 조선시대 여성에게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친 도덕적·윤리적 항목은 '실절(貞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열녀의 범주 속에는 전쟁 속에서 외적에 대해 자신의 몸을 지키거나, 몸을 희생하거나, 남편이 죽은 뒤 시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행위까지 들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규범이 생기기에도 이른다.

① 향낭⁴²⁾은 선산 열녀이다. 그 선조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중략)향낭은 화장하기를 싫어하고, 고운 옷을 입어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을 뿌끄럽게 여겼다.(중략) 십칠세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지아비는 豪家子인 까닭에 歌舞를 할 줄 아는 미녀를 원했다. 낭이 정숙한 덕이 있어 歌舞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맞지 않아서 3년 동안 사랑함이 없었다.⁴³⁾

② 혼례를 치른 첫날부터 남편의 무례함이 나타나서 香娘은 자신의 地運

42) 숙종 28년(1702) 선산에서 일어난 향낭의 자살 사건은 그 당대인 18세기부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작품화 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박옥빈(『香娘고사의 문학적 연변』,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2)의 연구가 있으며, 향낭고사를 수용한 각각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43) 남은경, 「18, 19세기 漢詩·文에 나타난 여성형상-여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11집, 동양고전학회, 1998, 46~47면.

을 슬퍼하고 부친은 후회한다. 삼일 수 夫家로 가니 媿母는 혼수품이 많지 않고 또한 香娘이 貧家女임을 들어 꾀박한다. 남편 역시 狂悖한 행동이 날로 더해 가서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된다.⁴⁴⁾

위의 인용문 ①은 숙종 28년(1702) 선산에서 일어난 향낭의 자살 사건에 대하여 玄同 李安中(1752~1791)이 <향낭전>에서 남편이 향낭을 박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또 <향낭전>에 비해 후대의 작품인 인용문 ②를 살펴보면, 시모가 경제력이 없는 향낭을 꾀박하기까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남성은 아름답고 재주 있는 여성에 대한 지향이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졌으면서도, 정작 양반 사대부가의 정실부인, 양민의 정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貞과 德을 강조하여 그에 맞는 행동규범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로 오면서 여성에게 경제력까지 요구하게 되는 모순이 중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정조와 순결에 대한 사회적 이념화와 사회 현실이 중첩·지속되면서 조선후기로 갈수록 도덕적, 신분적 규율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중첩된 사회모순의 최대 희생양은 여성이었으며, 남성중심 사회인 조선시대에서는 여성이 기본적으로 자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규범이 작품에서 유교적 현실의 표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서사단락에서 살펴본 박씨의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현실지향성을 띤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표면적인 행위의 틈새에 있는 신화적 잔영은 개인과 민중의 의식 속에 내재한 신화적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이 가부장권의 유교 현실에 편입하려는 노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박씨는 자

44) 鄭孟燮, 「『三韓拾遺』의 研究-香娘설화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3면.

연적인 본능인 잠만 자고 밥만 먹는 것에서 이탈하여 미인이 됨으로써 유교 현실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단, 현실의 논리로 성공하지 못할 전쟁에 대비해서 자신의 허물을 넣은 옥함을 보관하고 피화당을 가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본 박씨의 행위들은 중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신화적 환상으로서의 민중의 욕망이라는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남성 중심의 유교적 현실에서의 여성 현실을 표상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것은 여성이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와 무엇을 지향하는가의 문제를 인식한 여성의식의 측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 박씨의 구체적인 행위는 신화적 잔재라는 초현실의 관념과 유교현실의 표상이라는 현실의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다.

2) 美·醜에서의 낮설음과 경이로움

〈박씨전〉에서 박씨의 표면적인 구도는 천상계에서 적강한 것과 추한 용모가 미모로 바뀌는 것이다. 박씨는 금강산 박처사의 딸로서 천상계에서 적강한 인물이다. 이러한 박씨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 박처사의 성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처사가 현실세계의 인물이 아니라 초월세계의 인물이라는 암시는 작품의 곳곳에 보인다.⁴⁵⁾ 박처사는 현실세계에 두 번 내려온다.

45) 위의 두 예문 ①의 ‘갈근야복’, ‘선관’, ②의 ‘옥저소리’, ‘빅학’ 등이 금강산이라는 초월 공간에 대한 배경이다. 금강산이라는 공간이 초월공간이라는 암시는 이외에도 여럿 나와 있다. 조희웅(『說話學綱要』, 정음문화사, 1989)은 고소설에 나타나는 비현실계 중 선계를 천상선계, 산악선계, 해중선계로 나누었는데 이 논의에 의하면 금강산은 산악선계에 해당한다.

① 일일은 외당의 홀노 안저드니, 엇더헌 슝름이 갈근야복으로 찾거늘, 상공이 즈셔이 보니 그 슝름의 의복은 비록 남누흐나 용모와 거동은 비범헌 사름 일니라. 급히 일허 공순이 예호고, 좌정 후의 성명을 무르니, 그 사람이 답왈 “나는 금강산 박쳐시라. 상공의 녀호신 덕을 듯고, 한 번 뵈옵기를 원허여 왔나이다.” 흐거늘, 상공이 단정이 예좌하며 사례 왈 “존직은 선관이요, 나는 진세간 더러운 사름이라. 선범이 현슈헌디, 오날날 말습이 분외의 지니 오니, 도로혀 황공허나이다.”⁴⁶⁾

② 그날이 당흐미 승상이 의관을 정제호고 외당을 슈쇄허여 기다리드니, 홀연 옥저소리 츠츄오며 치운이 영농호드니, 처스 빅학을 타고 공중으로 니려와 당의 오르거늘, 승상이 반기여 마저예호며 적연 그리든 회포를 말습흐다가 승상 왈, (중략) 일일은 처스 그쌀을 불너 왈, “네 이제는 익운이 진호엿시니 허물을 곳치라.”(172~174면)

위의 예문 ①은 박쳐사가 자신의 딸과 시백의 정혼을 위해 이득춘의 집에 찾아오는 부분이며, 예문 ②는 박씨에게 허물을 벗으라고 명하기 위해 내려오는 부분이다.

고소설은 주인공이 천상계에서 현실계로 적강하여 공간이 바뀌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현실계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천상계로 환원(還元)함으로써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그리고 주인공의 지상계에서의 삶은 옥황상제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주인공이 천상계에서 득죄한 대가로 겪는 시련과 고난은 지극한 것인데 그 고난의 극점에서 초월자의 도움에 의하여 사건의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행복을 맞는다. 이러한 고소설의 진행은 소설의 흥미를 더해줄 뿐만아니라 독자들이 현실계에서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발휘한다.

46) 김기현 역주, 「박씨전」,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 1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141면(이후 작품 인용은 면수만 밝혀 준다.)

이 작품에서 박씨는 초월자인 박처사의 도움으로 변신-탈감함으로써 절대가인이 되고, 호적을 퇴치하는 도술을 부린다. 또한 작품의 결말인 서사단락 (28)에서도 천상천녀로 박처사 집에 적당한 인물, 즉 초현실 인물이라는 것을 밝혀 놓았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신분적인 면에서는 고소설의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 작품에서 박씨의 용모가 추하다는 것은 탈감-변신하기까지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고전문학 작품에서 주인공의 외모가 추한 것으로 설정된 경우는 흔치 않으며, 〈박씨전〉에서처럼 주인공이 추녀로 설정된 예는 더욱 흔치 않다.⁴⁷⁾

① 상공이 신부를 다리고 길을 썰나, 날이 저물미 직점의 드러가, 실낭·신부를 다리고 한 방의 드러가니, 신부 무릅씨를 벗고 안질세, 그 용모를 보니 형용 흉측하여 보기를 염네론지라. 열기는 고석갓고 불근 중에, 입과 코와 한테 닳고, 눈은 달팽이 구멍 갖고 치불거지고, 입은 크기가 두 쥬먹을 너허도 오히려 넉넉하며, 이마는 메뚜기 이마 갖고, 머리털은 쓰르고 심히 부하니, 그 형용이 츠마 보지 못헐네라.(150면)

② 비록 칠규는 잇시나 얼굴이 사름갓지 아니 호야 한낫 육괴라……초옥이 이십오세되니 더욱 괴괴호야 아무 말도 못호고 (〈형산백옥〉, 550면)⁴⁸⁾

③ 그 용모를 말한진대, 두 불은 한자가 넘고 눈은 통방울같고 코는 질병

47) 고전문학에서 추녀 주인공이 등장하는 경우는 〈형산백옥〉의 초옥, 〈꼭독각시전〉의 꼭씨녀, 가사집에 전하는 〈노처녀가〉의 노처녀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등장인물의 부도덕성이나 불성실성 등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녀의 등장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 〈심청전〉의 뽕덕어미 등.

48) 「형산백옥」, 『활자본 고전소설전집』10, 아세아문화사, 1977.

같고 입은 메기같고 머리털은 돼지털같고 키는 장승만하고 소리는 이리 소리같고 허리는 두 아람이나 되는 것이 게다가 곰배팔이요 수종다리에 상언청이를 겸하였고 그 주둥이를 찢어내면 열 사발은 되겠고 읽기는 콩명석같으니, 그 생김새는 차마 바로 보기가 어려운 중에.....(〈장화홍련전〉, 122면)⁴⁹⁾

위의 인용문 ①과 ②는 주인공이 추녀로 설정된 작품으로, 〈박씨전〉의 박씨의 용모와 〈형산백옥〉의 초옥의 용모를 묘사한 부분이다. 그리고 인용문 ③은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의 용모이다. 악인의 표상인 허씨는 고소설에서 인물 형상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박씨의 형상과는 구별된다. 박씨는 고소설에서 여주인공이 선인이나 제자가인으로 설정된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 여기에서 ①과 ②의 추한 모습은 외모에 한정되어 있음에 비해 ③의 추한 모습은 계모 허씨가 추한 용모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고 불성실한 악처로서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즉 〈박씨전〉의 박씨와 〈형산백옥〉의 초옥의 추모는 당대 소설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대 사회에서 외모의 인식의 이해를 위해 일반 고소설의 여주인공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① 그 계집이 향물의 익기를 잊쳐 부인것터 뉘이고 밧그로 나가거날 (중략) 꽃갓탄 얼굴이 비범하고 말근 향니 방안의 진동호거날 김전 부처 크게 짓거 익기 일흠을 속향이라 호고 즘난 월궁선이라 호다 (〈속향전〉)⁵⁰⁾

49) 「장화홍련전」, 『한국고전문학전집』, 회암출판사, 1978.

50)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편, 「속향전 송하」, 『한국고대소설총서』(필사본, 이화여대도서관소장), 1958. 7면.

② 낭주의 화용은 운간명월이 벽공에 걸었듯 티도는 금본모란이 흡연이 조로를 썬듯하고 일쌍츄파는 경슈갸고 섬섬세료는 춘풍에 양류 휘드는듯 첩첩쥬순은 잉뫼단스를 먹으믄듯하니 천고무쌍이오 츠세에 독보홀절터가인이라(〈숙영낭자전〉)⁵¹⁾

위의 예문은 각각 ① 〈숙향전〉의 숙향, ② 〈숙영낭자전〉의 숙영 등의 외모를 묘사한 부분이다. 두 작품의 여자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즉 위에서 살펴본 여주인공들의 외모는 초월적 환상성으로 만들어진 여인상이며, 이러한 경향은 당대 일반적인 여인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대 사회의 여성의 외모에 대한 인식은 ‘미인이 곧 선인’이라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씨전〉의 주인공을 추녀 설정한 것은 다른 고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부정적인 선입견을 반영하려는 의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인공에게 이미 예견된 시련⁵²⁾의 증거물인 썸이다. 이는 〈박씨전〉에서 박처사가 박씨에게 “네 이제는 익운이 진흐엿시니 허물을 곳치라.”(174면)고 말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다.⁵³⁾

이처럼 이 작품에서 추녀 박씨를 설정한 것은 ‘선한 주인공이 곧 미인’이라는 보편적 인식 기준에서 벗어난 ‘낮설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실세계에 대

51)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자료총서 간행위원회, 인천대학민족문화자료총서① 구활자본 「숙영낭자전」, 『고소설전집』, 은하출판사, 1983, 6면~7면.

52) 심치열(「숙향전 연구」, 『한국언어문학』제38집, 한국언어학회, 1997, 19면)“숙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작품 초두에서 제시한 다섯 번의 액운을 다 체험해야만 배우자와 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인내와 그 버팀의 힘을 주요한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박씨의 추모도 〈숙향전〉의 숙향이 겪는 시련 5가지가 작품 초반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로, 전생의 ‘업’으로 작용하고 있다.

53) 〈형산백옥〉의 초옥의 경우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죄 때문에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말도 하지 못하는 벌을 받고 있었다. 초옥이 십구세가 되었을 때 흉한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게 된다.

한 관습적 인식을 거부하고 당대의 보편적 결혼관습이나 재상집 며느리로서의 이상적 여주인공에서 벗어나 상처된 설정을 한 것은 작품에 강한 긴장미를 자아 내주고 있다. 따라서 추모로 인한 인식의 거부·전환은 적어도 현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탈갑-변신으로 획득한 미모는 의외성이나 모험심을 강조함으로써 독자에게 경이로움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고도의 환상성이 작용한다. '변신'은 현실적 차원의 인식을 넘어서서 신비적·이상적 세계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감동을 주는 소설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때 미모는 '추모'와는 달리 현실을 뛰어넘은 세계를 통한 흥분된 감동의 정서이다. 즉 미모는 감성에 호소하는 소설적 장치인 탈갑-변신에 의해 경이로운 정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탈갑-변신은 현실과 초현실의 틈새에서 정서적 환기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추모와 미모 그 자체가 이성과 감성, 현실과 초현실이라는 중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추모일 때의 박씨의 행위와 미모일 때의 박씨의 행위는 이탈 장치인 탈갑-변신에 의해 중첩되어 전개되고 있다. 즉 이성과 감성이 중첩되어 전개되고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박씨의 추모와 미모 그 자체가 갖는 특성은 보편적인 세계, 즉 현실세계에 대한 관습적 인식을 거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장치가 변별되는 특성도 존재한다. 추모 자체가 독자들에게 낯설음을 줌으로써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소설적 장치라면 탈갑-변신으로 인한 미모의 획득은 독자들에게 놀라움을 줌으로써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소설적 장치이다.⁵⁴⁾ 이러한 중첩적 구조 속에 환상성이 내재하고 있다.

54) 이문규(앞의 논문, 645~667면)에서 이 작품의 이본으로 UW본을 소개하면서 구조상 논리적 모순점이 거의 없다는 점과 세련된 표현미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 또 낯설게 하기, 놀라게 하기, 한풀기, 대립과 반전의 구조 등의 미학이 긴밀하게 구조화 되어 있다고 하였다.

3) 도술의 연속성에 따른 심화 및 확장성

작가는 작품 내에서 인물을 창조하고 인물의 성격과 행위를 통해 작품을 구성한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실재했던 인물과 신화적 잔존 인물이 복합되어 나타나 있다. 즉 현실 요소와 초현실 요소가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박씨전〉은 주인공 박씨는 신화적 잔존 인물이다. 그런데 아버지 박처사와 시비 계화를 박씨의 부속 인물로 볼 때, 나머지 등장 인물들은 대부분 실재 역사적 인물인 셈이다. 또한 박씨의 도술이 연속적으로 전개되면서 남성 인물에 비해 여성 인물이 뚜렷하게 심화·확장되어 전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물의 특징적인 면은 인물의 현실 요소와 초현실 요소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 작품의 순차적인 서사단락을 살펴보면, (1)~(7)은 이득춘과 박처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8)~(16)은 박씨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물론 박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에서 시백, 계화, 이득춘의 부인이나 비복이 간접적으로 등장하거나 박씨의 서사를 보조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서사단락 (1)~(7)도 박처사를 통해 박씨의 신분을 짐작하게 하는 단락임을 감안한다면, 탈갑-변신 전의 서사는 박씨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순차적인 서사단락 (17)~(28)의 경우 박씨 이외에 이시백, 호왕, 용울대, 용골대, 임경업 등이 행위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역사적 실재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작품의 중심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행위의 주체는 역사적 인물이지만 서사는 역사적 인물의 무력함이나 한계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 서사단락⁵⁵⁾은 다음과 같다.

이시백: (17) 시백이 평양감사, 병조판서를 지낸 후, (중략) 의주부윤에
제수된다.⁵⁶⁾

호왕: (21) 호왕이 왕비에게 요책을 물은 뒤, (중략) 이시백의 집 후원은
범치 말라고 한다.

용울대: (23) 용울대가 피화당을 범하나 (중략) 자결한다.

용골대: (24) 용골대는 강화를 받고 (중략) 피화당을 습격하는데 실패하
자 왕대비·세자·대군을 데리고 회군하려 한다.

임경업: (26) 임경업이 의주에서 호병을 만나 화친한 전지를 보고 사라
진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재의 역사적 인물들은 등장하지만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실재 인물과 행위를 적절히 허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의 인물인 이시백⁵⁷⁾은 영웅적 인물이었지만 이 작품에서의 이시백은 박씨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온다. 또한 시백은 박씨가 미인으로 변신한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박씨로부터 훈교를 듣는 것도 마지않는 졸부에 가깝다고 하겠다. 또 후반부에 등장하는 임경업은 민간전승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실재 영웅으로 평가된 근거를 가진 인물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의 실재 인물은 행위를 허구화시킴으로써 박씨의 비범함과 신이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은 굴욕적

55) 등장인물의 활약상에 대한 무력함이나 한계점의 내용을 밝히기 위해 앞에서 분석한 서사단락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분석한 서사단락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중략’을 사용하였다.

56) 시백의 활약은 박씨의 예언과 도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백이 조정에 등용된 것을 한계나 무력함으로 보았다.

57) 조희웅(고전소설 연구자료총서Ⅱ『고전소설 작품연구 총람』, 집문당, 2000, 131면)도 이 시백은 인조반정의 일등 공신인 이귀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인 행복으로 패한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왕가 피난, 불모의 참상 등 대체적으로 전쟁의 실상이 사실대로 나타나 있다.

즉 이 작품은 신화적 잔존 인물인 박씨를 중심으로 도술이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실제 역사적 인물의 행위도 허구적으로 형상화되면서 신화적 인물의 성격과 행위는 점점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작품은 이러한 양상과 더불어 여성등장 인물의 활약이 확대되어 전개되고 있다. 물론 박씨를 제외한 여성인물의 경우 행위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순차적인 서사단락 (1)~(16)에서는 계화, 이득춘의 부인, 비복 등의 여성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모두 허구의 인물들로 박씨의 행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17)~(28)에서는 시비 계화, 재상 부인들, 호국 중전, 기홍대, 왕대비 등의 여성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시비 계화는 이 작품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시비(侍婢)는 대체로 중심인물의 여주인공의 부수적 존재로서 중심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같은 주변적 인물들의 활동을 통해서 중심인물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고 이야기의 진전을 흥미롭게 하기도 한다. 또한 시비와 같은 주변적 인물 각자는 하나의 독자적 인물 유형을 대표하면서 작품 안에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 주변적 인물들의 다양한 활동은 소설 작품의 전체적 기능과 의미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⁵⁸⁾

〈박씨전〉에서 계화도 박씨를 보좌하기도 하고 박씨의 고독과 고난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씨전〉의 내용 중 박씨가 탈갑-변신

58) 정하영, “월매의 성격과 기능”, 『고전소설 연구의 방향』, 『한국고전문학연구회』, 새문사, 1985, 332면.

직후 두 편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시비 계화에 의해 불려진다.

① 계화 입을 여러 승상계 알외되,
이 니 심정 질겁도다 반갑도다.
아름다운 저 봄빛과 어엿분 저 명월이 난만하고
고진감니 거룩하다.
낙양춘풍 빅화 중의 이 봄빛 저 달이라.
분분요요 저 봉접아,
청산녹슈 말근 곳의 이 봄빛 도라보쇼.(176면)

② 계화 문득 나와 시백을 더하여 창가일곡으로 거름을 인도하며 노리혀
엿시되,
아름다운 저 명월이 흥운 속의 숨엇신이
발근 날이 그믐 되고,
시중천주 니티빅은 시중흥미 전여 업고,
적벽강 쇼즈첩은 선유로름 헐 기리 전혀 업다.
지나간 밤 경야의 썬구름 버셔나니,
천지도 명낭하고 정신도 쇠락하다.
췌홀시고 췌홀시고 월하흥미 조홀시고,
명월이 놀기 조흔 양뉴로다.
서방님은 빅옥누 조흔 곳의 저 월식 구경호소(177~178면)

위의 인용문 ①은 박씨가 허물을 벗은 후, 계화가 그 사실을 이득춘에게 알리는 내용이며, ②는 박씨의 탈갑-변신 사실을 듣고 달려온 이시백이 전일 박대하던 일을 생각하여 피화당에 들어가지 못하자, 시백에게 걸음을 인도하는 내용이다.⁵⁹⁾ 계화의 노래가 박씨의 기쁨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므로 노래의 화자는 박

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비 계화는 도술 행위의 주체자 박씨의 내면을 형상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고소설에서 삽입시의 기능⁶⁰⁾의 측면을 적용할 때, 위의 두 편의 시는 주인공 박씨와 이시백의 만남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박씨와 이시백은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으며, 단지 박씨가 추모인 이유만으로 시백이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삽입시는 박씨의 탈갑-변신 직후에 계화가 노래한 것이다. 따라서 고소설 전반에 있어 시비의 역할이 여성적 범주의 사건, 즉 가정적인 문제에 국한되고 있다고 한다고 할 때⁶¹⁾계화의 활약도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화가 용울대를 저지하여 용울대를 자결하게 만들고 적장으로 하여금 왕대비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계화의 대행에는 언제나 박씨의 지략과 비범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화 역시 박씨와 함께 작품의

59) 계화가 시백의 걸음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백 자신은 피화당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피화당에 들어가려고 하나 문 밖에서 배회한다. 결국 박씨가 계화를 시켜 시백을 청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이 세상의 처하여, 어려서는 글공부를 잠심하며 부모께 녕화와 효성으로 섬기며, 취척허면 사람을 현숙키 거나려 만디유전 허미 스람의 당당헌 일이온디, 군즈는 다만 미석만 생각하여 나를 추비허다 하여 인유의 치지 아니허니, 이러하고 오륜의 들며 부모를 효양허리요. 이제는 군즈로 마음이 염녀되어 전의 노정을 바리고 그되를 청하여 말습을 고히나니, 일후는 슈신제가하는 절츠를 전과 갖치 말나,”(181~182면)

60) 일반적으로 삽입시는 고소설과 한시의 혼합관계에서 소설에 한시가 사용된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삽입시의 기능은 ①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고지하는 단계 ②주인공의 매개적인 만남에서 매개적인 역할 ③결말 부분에 사용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민병수, 「한문소설의 삽입시에 대하여」,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474~476면.

조종업, 「고전소설과 한시」,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61) 김귀석, 「고소설에 나타난 시비의 특성과 기능」, 『한국언어문학회』 제39집, 1997, 255면.

서사전개가 후반부로 갈수록 심화, 확대되고 있는데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비 계화의 활약상은 여성인물의 확대된 양상이라는 점과 박씨의 신이성을 드러내주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계화 이외의 여성인물로 재상 부인들, 첩자 기홍대, 호나라의 중전, 조선의 왕대비 등이 등장한다.

재상부인: (16) 박씨는 재상의 부인들 앞에서 비단 도술과 술잔 도술을 부린다.

호나라 왕비·기홍대: (18) 호왕이 왕비의 천기(天機)로 (중략) 기홍대를 조선에 보낸다.⁶²⁾

기홍대: (19) 박씨는 기홍대를 예측하여 피화당에서 도술로 물리친다.

왕대비: (24) 용골대는 강화를 받고 (중략) 왕대비·세자·대군을 데리고 회군하려 한다.⁶³⁾

위의 여성인물들도 모두 작품의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다. 계화와 마찬가지로 박씨의 신이성을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박씨는 허구의 인물인 호나라 왕비의 천기와 기홍대의 도술을 물리침으로써 신이성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왕대비나 호국의 왕비, 기홍대 역시 서사전개가 호적의 퇴치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사건이 심화·확대되는 것에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의 도술담은 역사적 인물과 여성인물이 대거 등장하면서 긴밀한 짜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긴밀한 짜임의 도술담은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도술이 여성에게도 부여됨으로써 독자인 여성은 상상적 욕망을

62) 호나라 왕비의 경우 서사단락 (21)에도 등장하며, 기홍대의 경우 서사단락 (19)에도 등장한다.

63) 왕대비의 경우 서사단락 (25)에도 등장한다.

충족시킬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후대에 널리 애독된 작품이면서도 도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은 여성 독자뿐만 아니라 비식자층에 대한 서사문학에 대한 욕구도 충족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⁴⁾

독자는 현실 저 너머에 있는 신화적 잔재가 가미되고 환상적 요소가 개입됨으로써 상상적 세계의 표현을 느끼며, 대리만족감도 맛볼 수 있었을 것이다.

2. 공간을 통해 본 중첩적 구조

일반적으로 고소설에 나타나는 공간은 관념적인 신선계, 저승계, 속계, 지상, 수부, 지하 등이다. 분류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명칭으로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현실세계와 초월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설에서 주인공은 초월세계로 직접 걸어서 가거나 꿈을 통해 상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극복한다. 이와는 달리 〈박씨전〉에서의 피화당이라는 공간은 현실 공간 내에 있는 초현실 공간이다.

이 작품에서 공간의 전이과정에 따라 공간의 경계가 되는 지점의 특성을 제시하고, 격리를 통한 공간의 축소화와 이탈을 통한 공간의 고정화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공간 격리를 통한 영역의 축소화

문학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과는 다르다. 물리적 공간은 상하, 좌우, 전후로 뻗

64) 이 작품은 목판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활자본으로는 한성서관본과 대창서관본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많이 읽혀진 작품이다.

어 있고 일정한 모양을 갖춘 형체인 데 비해, 문학적 공간은 독서행위를 통해 상징적·심미적으로 인식되는 형체이다.⁶⁵⁾ 따라서 소설에서의 공간은 주인공을 상징하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설의 주인공은 초현실계에서 현실계로 진입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하므로 배경공간의 전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은 현실계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고난을 극복하고 초현실계로 귀환함으로써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그리고 주인공의 현실계에서의 삶은 옥황상제의 뜻에 따라 영위되며, 주인공의 시련과 고난의 극점에서 초월자의 지시나 도움에 의하여 사건이 반전을 이루고 행복을 맞게 된다. 이러한 고소설의 일반적인 흐름과 친숙한 주인공의 성격은 소설의 흥미를 더해 주고 독자들이 현실의 고단함을 정화시키는 기능도 발휘한다. 〈박씨전〉에서의 주인공도 천상계에서 적강한 선녀이며 박처사의 도움으로 변신-탈감함으로써 절대가인이 되었고 호적을 물리치는 능력까지 발휘하게 된다.

〈박씨전〉의 적강구조는 일반적인 고소설의 공간구조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증거가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금강산의 설정이다.

① 일일은 외당의 홀노 안저드니, 엇더헌 스톱이 갈근야복으로 찾거늘, 상공이 즈서이 보니 그 스람의 의복은 비록 남누흐나 용모와 거동은 비범헌 사름일니라. 급히 일허 공순이 예호고, 좌정 후의 성명을 무르니, 그 사람이 답왈 “나는 금강산 박처사라. 상공의 늑호신 덕을 듯고, 한 번 뵈옵기를 원허여 왔나이다.” 호거늘, 상공이 단정이 예좌하며 사례 왈 “존직은 선관이요, 나는 진세간 더러운 사름이라. 선범이 현슈헌디, 오날 날 말슴이 분외의 지니 오니, 도로혀 황공허나이다.”(141면)

65) 신태수, 「고소설의 공간에 대하여」, 『영남어문학』 28, 영남어문학회, 1995, 215면.

② 여러 날 만의 금강산의 다다르니, 아모더로 갈 줄을 모로더라. 첩첩한 산중의 희미한 길을 차저 점점 드러가니, 길이 끈쳐지고 또한 서경이 지을 너무미, 혈길이 엮서 여길의 나와 즈고, 잇튼날 다른 길을 차저 점점 드러가니, 천봉만약 놓흔 곳데 빅운이 유유히고, 층암절벽 험한 길의 계슈는 잔잔히여 경지절승현지라. 규경히며 차차 드러가 반일이 지나 되 스람 하나 보지 못히여 정이 민망히든츠, 초군 슈습인이 마조 나오거늘(146면)

대개 초현실 공간에 있는 신성(神聖)은 주인공이 살고 있는 특정한 현실적 공간에서 고난을 해결하여 준다. 이때 신성이 나타나는 공간은 현실적인 공간이나 비현실적 공간과는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상징된다. 고소설에서 신성 공간에서 인간계로의 진입은 적강(謫降), 인간계에서 신성 공간으로의 진입은 각몽(覺夢)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이다. 이 작품에서 금강산은 박처사가 거쳐하는 신성 공간이다. 고소설, 특히 군담소설류에서 유토피아로 묘사되는 선계의 위치와 형상은 천상계·신선계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선계는 선조들이 상상의 세계 속에 만든 공간이므로 관념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사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공간으로서의 선계를 천상선계·산악선계·해중선계 등으로 구분한다.⁶⁶⁾ 이들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을 신선(神仙)이라고 지칭한다. 고소설에서 천상선계는 현실과 선계를 조화시켜 새로운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천상선계에 살고 있는 선인(仙人)들의 주재자는 옥황상제이다. 산악선계는 선계의 존재를 하늘에서 구하려는 사고방식이 다소 변하면서 민중의 산악 숭배와 관련하여 내륙의 여러 명산에서 선계를 구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금강산 외에도 초현실 공간인 피화당이 설정되어 있다.

66) 조희용, 「한국 서사문학의 공간관념」, 『고전소설연구』, 정음문화사, 1984, 23-26면.

피화당은 현실공간인 이시백의 집 내에 있는 좁은 협실로 초현실공간의 중첩성을 띠고 있다.

우선 순차적인 서사단락에 따라 전이되는 공간을 분석하면 <표-1> 과 같다.

<표-1>

서사단락	(5)	(6)~(7)	(8)~(13)	(14)	(15)~(28)	결말암시
공간이동경로	금강산	현실계(시백의 집)		(금강산)	피화당	천상계 또는 금강산
		시백의 집	피화당			
현실/초현실	초현실계	현실공간	현실공간·초현실공간	(초현실계)	현실공간·초현실공간	초현실계
공간의 특색						

위의 <표-1> 은 박씨를 중심으로 공간의 전이를 나타낸 것이며, 현실계의 이시백의 집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표-1> 의 항목 중 ‘공간의 특색’ 는 공간이 전이되는 과정에서의 특성을 나타내 본 것이다.⁶⁷⁾

67) <표-1> 에서 ‘공간의 특색’ 항목과 ㉠~㉤ 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주체는 박씨이다)

- ㉠ 현실계로 진입: 금강산 박처사와 이득춘의 혼인 약속으로 현실계인 시백의 집에 오게 된다.
- ㉡ 현실공간에서 격리: 집안 사람들의 박대로 협실 공간 피화당에서 지낸다.
- ㉢ (환기): 이틀 만에 금강산에 다녀옴으로써 현실계에서의 이탈과 현실공간으로의 환원을 준비한다.
- ㉣ 현실계에서 이탈과 현실공간으로 환원: 박씨가 탈감-변신이라는 이탈 장치로 현실계에서는 이탈하였지만 현실공간으로 환원한다.
- ㉤ 초현실계로 환원: 금강산이나 천상계로 환원했다는 내용은 없으나, 결말 부분인 순차

위의 표를 살펴보면, 이 작품의 표면적인 전이과정에서 이미 현실과 초현실이 중첩되고 있다.⁶⁸⁾ 위의 <표-1> 을 살펴보면, 박씨는 아버지 박처사와 시부 이득춘이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금강산에서 이시백의 집으로 진입을 하지만 곧 격리됨으로써 현실인 피화당에서 지내게 된다. 그러므로 금강산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공간이 축소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조반을 파흔 후 처스 왈 “이러듯 먼먼 길에 후일 권귀허기 도로혀 폐단이라, 오날날 상공이 아조 달리고 가옵쇼셔.”(150면)
- ② “뵈일 밥만 먹고 잠만 즈고 뵈스를 전패하니, 일기 더욱 미워허며 쭈지람 지반의 가득흐되”(154면)
- ③ “미부 얼굴이 췌비흐고 덕형이 업서 군즈의게 췌즐 웃지 못허오니, 후원의 험실을 창건하여 췌압시면, 일신을 감초와 거쳐흐옵게 흐옵쇼셔.”(156면)

위의 인용문들과 위의 <표-1> 의 ‘공간의 틈새’ 항목을 연결 지어 보면 “①의

적인 서사단락(28)에 암시되어 있다.

68) 신세윤(앞의 논문)에서도 <박씨전>의 도술 공간을 현실계와 비현실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계에서의 부귀영화나 입신양명이 비현실계인 금강산에서는 부질없고 헛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표면적인 틈새의 중첩을 환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특히 ‘금강산’에 대해서 “박처사의 공간이 현실계의 공간과 비현실계의 공간이 중첩(51면)”된 공간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비해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의 주요 공간들이 표면적인 중첩 뿐만 아니라 박씨의 행위가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즉 박씨가 시백의 집에서 피화당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라기 보다는 박대를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격리’라고 보았다. 그리고 박씨는 금강산을 다녀온 후 탈갑-변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피화당으로의 이동은 이전의 ‘격리’에 비해 박씨 자신의 자율의지에 의한 ‘이탈’이라고 보았다.

행위-㉑결과”, “㉒와㉓의 행위-㉔”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피화당은 박씨가 현실계로의 진입과정과 격리과정을 거친 뒤, 박씨가 금강산을 다녀 온 후에 본격적인 도술을 발휘하는 공간이다. 박씨의 탈감-변신은 축지법으로 금강산을 다녀오는 행위와 금강산 박처사의 명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다.

① 박씨 왈, “형장 츠릴 것도 업습고, 이틀 말미만 쥬오시면 단여오리이다.” 승상이 고이희 여귀나, 그 신괴흔 일이 스람이 본밧기 어려운지라 허락허여, 부디 슈이 오물 당부흔디, 박씨 이튼날 겨명 후 승상전의 하직 하고 문 박게 나서 두어 거름의 간 곳을 모를너라.(172면)

② 그날이 당허미 승상이 의관을 정제하고 외당을 슈쇄허여 기다리든지, 홀연 옥저소리 츠츠각가와오며 치운이 영농허든지, 처스 빅학을 타고 공중으로 니려와 당의 오르거늘, 승상이 반기여 마저에허며 적연 그리든 회포를 말습허다가 승상 왈, (중략) 일일은 처스 그 쌀을 불너 왈, “네 이제는 익운이 진허엇시니 허물을 곳치라.”(172~174면)

위의 인용문들과 위의 <표-1>의 ‘공간의 틈새’ 항목을 연결 지어 보면, “㉑의 행위-㉔의 결과, ㉒의 행위-㉔의 결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위의 인용문 ①, ② 는 모두 금강산의 박처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박처사는 현실세계와 초현실세계를 드나들 수 있는 도사(道士)나 방사(方士)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금강산이라는 공간은 보편적인 세계관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박씨전> 은 도불습합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⁶⁹⁾

69) 도불습합의 신앙 전통은 도불의 신들과 인간적 영웅을 더욱 강화·미화시킨 ‘영웅의 일대기’신화로서 신화적·전설적 서사문학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도불의 신들이나 인간적 영웅을 설정하여 그 일대기를 권능, 신기, 도술로써 영험·구제를 자

이러한 공간의 전이에 대해서 현실세계에 대한 향유층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정서적 환유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⁷⁰⁾ 이것은 앞에서 분석한 인물분석에서 신화적 잔영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물의 구체적 행위와 결과의 틈새에 호흡하는 초현실 관념인 신화적 환상과 동계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피화당은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향유층의 인식과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결국 피화당을 둘러싼 공간의 묘사 내용, 즉 인물의 행위를 이해함으로써 신화적 잔영은 더욱 잘 드러난다.

잇씨 박씨 계화로 흐허곰 후원 협실의 스방으로 나무를 시무되, 동방의는 청토요, 남방의는 적토요, 서방의는 빅토요, 북방의는 흑토요, 중앙의는 황토요, 나무나무 복도도와 썩째로 물을 주어 무슴형용갓치 기르터니, 그 나무 무성흐엇는지라."(164면)

위의 인용문에서 박씨는 자신의 신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실의 사방에 나무를 심고 오방색 흙으로 나무를 자라게 하고 있다.

박씨 대왈, "길흉화복은 세상의 썩썩한 일이요, 일후 불행한 씨를 만나면 저 나무로 피화를 면호을 터이웁기로 당호를 피화당이라 흐엇는이

유자재로 성취시켜 주는 '영웅의 일생'을 창조해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적 소망과 역량이 결집되어 이른바 본풀이로서 주신 풀이, 주인공 풀이가 등장하였고, 이것이 소설계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와 사조가 소설계와 접맥되어 도불습합소설의 출현을 촉진하였으리라고 보려는 것이다.

한국도교문학회, 앞의 책, 261면.

- 70) 장일구(『서사적 공간론의 이론과 실제』, 『서강어문』 13집, 서강어문학회, 1997)는 "서사체에서 문제시되는 이야기 공간은 실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술자(창자)에 의하여 구성되는 공간이자 동시에 수용자(청중, 독자)에 의하여 재창조되는 공간이다."라고 하였다.

다.”(166면)

위의 인용문은 박씨가 불행한 때를 예측하면서 당호를 ‘피화당’으로 짓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피화당에서의 박씨의 시련은 잠정적일 뿐 불행한 때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박씨가 진입과정과 격리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해당하는 순차적인 서사단락은 (8)~(13)이다. 이때 박씨의 행위는 양마득금, 피화당 가꾸기, 남편에게 연적 전하기 등이다. 박씨가 추모일 때의 이러한 행위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현실적인 결과는 능력을 인정받는 것과 미인이 되는 것이다. 즉 여성적 욕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박씨는 금강산에 다녀온 후 현실계에서 이탈함으로써 탈감-변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박씨가 추모일 때의 행위는 잠정적인 것이지만 금강산이라는 환기 공간으로 인해 지속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위의 <표-1>의 금강산을 기점으로 ‘㉔ 현실계에서 이탈과 현실공간으로 환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잠정적인 의미는 박씨가 탈감-변신 후에 행할 도술에 엄청난 폭발성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화당은 표면적으로는 이시백 집안의 공간으로서 축소가 되어 있지만 의미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격리를 통한 공간의 축소는 표면적인 현실과 초현실의 중첩뿐만 아니라 여성 욕망의 발현이라는 현실 인식과 신화적 환상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공간 이탈을 통한 영역의 고정화

피화당은 박씨가 현실계로의 진입과정과 현실공간에서의 격리과정을 거친 뒤, 박씨가 금강산을 다녀 온 후에 본격적인 도술을 발휘하는 공간이다. 박씨의 탈감

-변신은 축지법으로 금강산을 다녀오는 행위와 금강산 박처사의 명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다. 따라서 공간의 틈새 항목인 ㉠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계에서는 이탈하지만 현실공간인 피화당으로 환원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 속에 관념 공간인 피화당이 중첩되면서 공간이 고정화되고 있다.

① “이 비단 일흠은 빙잠단이라. 우리 부친이 용궁의 드러가 어더온거시니, 물의 너어도 젖지 안코, 불의 너의도 타지 아니하니, 이는 인간죄되 아니라 용녀의 슈품이라.”(184면)⁷¹⁾

② 부인이 이러는 그 형장을 펴보니 아무것도 업고, 든 비슈 흐느잇서 슈홍으로 식엇시되 비연도라 흐엇더라. 그 칼이 행장 맞게 느와 제비 되어 방안의 날며 부인에게 침범코져 흐거늘, 부인이 락운지를 썬리니 변화치 못하고 썬러지거늘(중략)“괴홍디야 네 즘을 썬여 나를 보라.”(198면)

③ 잇썬 울터 빅여 괴를 거느려 우상의 집을 범하여 인물을 슈탐흐드니, 녀외 적적하여 빈집 갖거늘, 츠츠 슈탐하여 후원의 드러가 슬퍼보니 원갓 괴이헌 슈목이 좌우의 버러 무성흐거늘 (중략) 전여 갈 길이 업는지라.(204면)

71) 이종은외 6명(『한국문학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학 논문집』 제28집, 한양대학교 한국한연구소, 1995, 108면~109면)은 “인간의 천상 승화를 표상한 것이 천상계라면, 수궁열락과 풍요로운 갈망을 요구한 환상은 해중선계이다. (중략) 해중선계는 수궁, 용궁으로 통칭되며 수중에 있다고 믿었던 서사공간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 ①의 경우 이 작품에서 유일한 박씨의 외출이라고 할 수 있다. 재상의 부인이 다 모인 자리인 “청누”에서 “선경”의 “불췌터력으로 썬 비단”, “우리 부친이 용궁의 드러가 어더온 빙잠단”, 그리고 “금봉채” 등으로 도술을 부린다.(182면~184면) 이와 같은 내용을 해중선계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겠음을 밝혀둔다. 본 논문에서는 용궁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표-1>의 공간의 이동 경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위의 인용문 ①은 박씨가 이웃집 재상 부인들에게 치마·저고리 도술을 발휘하는 부분이며, ②는 호적의 첩자 기홍대를 예측하여 물리치는 부분, ③은 용울대가 피화당으로 쳐들어왔을 때 울대가 피화당의 범상함에 포위되는 부분이다. 박씨가 미모일 때의 능력발휘는 위의 ②나 ③과 같이 피화당 안에서 호적의 퇴치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들은 박씨가 추모일 때와는 달리 행위와 공간의 틈새 항목이 원인과 결과관계에 있지 않다. 즉 미모일 때의 박씨의 도술은 반복적으로 전개·진행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간은 실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술자와 수용자에 의하여 재창조되는 공간이라고 앞에서 밝혔다. 그렇다면 피화당이 어떠한 의식과 해석으로 재창조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고정화된 피화당의 상징성을 밝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금오신화》에서 공간은 현실계와 비현실계로 이원화되었거나 현실계에서 비일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인물들은 현실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비현실계로의 진입이나 비일상적 경험을 통하여 충족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비현실계가 현실계에 편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비현실계는 현실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 체험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자괴감의 발로이다. 향유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계의 규범과 욕구 등 모든 현실의 절망과 그에 대한 무기력이 비현실계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박씨전〉과 유사하게 도술담이 들어 있는 작품인 〈전우치전〉의 경우 서사는 거의 현실계 안에서 전개된다. 즉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계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작품 안에 천상세계나 선경(仙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모티프는 여러 번 등장한다. 〈전우치전〉의 초현실계는 현실계 안에서, 등장인물들의 신념체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⁷²⁾

72) 조혜란, 앞의 논문.

그러나 <전우치전>의 경우 초현실계는 <박씨전>의 피화당과 같은 관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하로는 몸을 변하여 선관이 되어, 머리에 쌍봉 금관을 쓰고, 몸에 홍포를 입고, 허리에 빅옥더 띠고, 손에 옥홀을 쥐고, 청의동즈 흰 쌍을 다리고 구름을 타고, 안기를 명에하여 바로 대권 우에 니르러 공중에 머머러 섰스니, 이새는 춘정월 초이일이라.⁷³⁾

② 호고 언홀에 하늘로 올라가거늘, 상이 신기히 녀이시며 던에 오르샤 문무를 모화 의론하실시, 간 의태위 주왈,(286면)

③ 말을 맞치며 두 편으로 쌍동지 학을 타고 니려와, 요구에 황금 들보를 걸어올너 치운에 싸혀 남짜호로 흥하니, 무지기 하늘에 써치고 풍우 소래 진동하며 오식 치운이 각각 동서로 훗히지거늘.(288면)

④ 이새에 우치 구름을 타고 스쳐로 돈니며 더욱 어진 일을 흥하더니, 혼곳에 니르러 보니, 빅발 로옹이 슬히 울거늘, 우치 구름에 느려 그 우는 연고를 무르니, (296면)

위의 인용문들은 <전우치전>에서 전우치가 도술을 부리는 부분이다. 인용문 ①, ②, ③은 전우치가 임금의 상대로 황금들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부분이고, 인용문 ④는 자식의 억울한 누명을 슬퍼하는 노인을 도와주기 위해 구름을 타고 다니는 부분이다. 이처럼 <전우치전>의 도술은 현실계 안에서 또는 일상적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접근하기가 쉽게 느껴진다.

73) 김일렬 역주, 「전우치전」(신문관본),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 25,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284면.(이후 이 작품의 인용은 면수만 밝혀 준다.)

반면 〈박씨전〉의 피화당은 규방의 현실공간이면서, 도술공간인 초현실공간이다. 즉 현실공간 속에 초현실공간을 중첩적으로 설정하면서, 신념체계를 건축물로 환치시켜 놓은 것이다. 박씨의 공간인 피화당은 건축물로서 조선 여인의 규방의 의미라는 현실로 다시 환치시킬 수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유교의 가부장권 사회에서의 한계가 있는 도술을 행함으로써 당대사회의 세계관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화당은 고소설의 일반화된 초월계의 공간과 변별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정화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도술은 실제의 전란체험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실천적·실행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탈을 통해 고정화된 피화당에서 박씨가 추모일 때의 축소된 공간에 숨어있던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 이는 민중적 욕망이 고정화된 공간에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건을 통해 본 중첩적 구조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허구화한 소설이다. 이 작품의 서사는 박씨의 도술이야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건을 분석하는 일은 사건의 진실성이나 사건들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따져보기에 앞서 주인공이 어떤 행위를 거치고 어떤 목적으로 사건이 전개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도술은 환상적인 표지이며 환상이 그 사건을 목도한 심리를 일컫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인공 박씨의 도술이야기에는 객관적 경험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으로부터 초현실의 관념이 추출된다.

박씨의 도술이야기에 대해서도 탈감-변신을 기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개인적 욕망에 따른 연쇄

고소설에는 일정한 서사패턴이 존재한다. 고소설에 앞선 서사체를 설화라고 한다면, 설화의 구술적 패턴의 일부가 고소설에도 수용되었을 것이다. 이 작품의 경우 작은 삽화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정 정도는 설화의 구술패턴을 영향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분석되는 서사패턴이 서사전개와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환상을 일으키는지 밝히도록 하겠다. 우선 박씨가 탈감-변신하기 전의 서사전개에 따른 순차단락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진행과정	결 과
(9) 조복짓기.....	임금에게 존재를 알리고 인정 받음.
(10), (12) 양마득금.....	가정 경제에 도움 줌.
(11) 피화당 가꾸기.....	(화를 피할 공간 준비).
(13) 연적을 시백에게 전함.....	남편 시백의 과거급제.
(14) 금강산을 이틀만에 다녀옴.....	(탈감-변신 준비)
(15) 탈감-변신.....	미인이 되어 시백과 동침함.

위의 인용을 살펴보면, 박씨가 추모일 때 도술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진정한 편입을 위한 연쇄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박씨의 도술행위의 과정은 최종 지향점이 탈감-변신이기 때문이다. 박씨의 도술에서 발견되는 연쇄적 행동, 즉 발현 과정은 국가로부터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축소되어 가고 있다.⁷⁴⁾ 즉 박씨는 피화당을 구국을 위해 준비한다. 양마득금과 연적 전하기는 가산의 증식과 가문의 번

74) 순차적인 서사단락 (8)에서 박씨는 이미 협실에서 지내고 있다. 이는 박씨가 도술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진 서사이므로 가장 후일에 일어날 사건을 예견한다고 볼 수 있다.

창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에 다녀옴으로써 추모의 허물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개는 앞의 단락에서 뒤의 단락 사이에 공간이나 행위의 일치로 패턴을 예상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즉 발현과정의 대상이 축소됨으로써 서사패턴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중첩연쇄의 서사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박씨의 비범함을 인정하는 대상은 "시아버지 - 노복 - 남편"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마침내 탈갑-변신을 함으로써 가정 내의 인물 모두에게 능력을 인정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앞의 단락과 뒤의 단락이 발현과정의 대상과 비범함을 인정하는 대상이 자연스럽게 확대된다는 점에서 중첩이다. 또 앞의 단락과 뒤의 단락이 자연스럽게 매워지면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연쇄다.

이와 같이 〈박씨전〉에서 탈갑-변신 전의 서사는 앞의 단락과 뒤의 단락의 중첩 연쇄로 전개되고 있다. 즉 장면의 전환은 앞의 단락에서 초점화 된 발현 과정 대상이 뒤의 단락에서는 축소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박씨의 비범함을 인정하는 대상은 앞의 단락에서 뒤의 단락으로 진행될수록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이야기 전체를 항상 조감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락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첩 연쇄의 구조는 구술 정신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를 구두로 하는 사람은 기억술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첩 연쇄의 방식은 화자나 작가는 물론이고 청자나 독자에게도 이야기의 초점을 항상 유지하게 하고 다음 이야기도 예측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표면적인 인물이나 공간, 사건의 중첩 연쇄 패턴이라기보다는 도술 행위와 현실적 결과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이다.⁷⁵⁾

75) 김현주(『고소설의 구술적 서사 패턴』- 〈유충렬전〉에 나타나는 반복 병치 및 중첩 연쇄의 서사 패턴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1·12합집, 2001, 103면)는 〈유충렬전〉의

한편 도술 주체는 박씨, 즉 여성이다. 박씨의 도술의 과정은 협실 공간을 마련하는 국가적인 과정에서 "집안 -가정 - 가족구성원", 그리고 "개인 여성"으로 축소되면서 진행되므로 여성 개인의 정체성 찾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 개인의 정체성 인식은 도술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 욕망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탈갑-변신 전의 박씨의 도술은 중첩 연쇄의 구조로 여성 개인적 욕망의 표출 수단으로도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⁶⁾

2) 민중적 욕망에 따른 병치

박씨가 탈갑-변신 후의 도술담은 호적의 퇴치에 집중되어 있다. 박씨가 호적의 침입에 대해서 피화당에서 남편을 내세우거나 시비 계화를 시킴으로써 초현실적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박씨의 탈갑-변신 후의 도술담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사전개의 순차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사패턴은 앞 장면에서 초점화된 인물이나 장소가 바로 뒤의 장면의 묘사 대상이 됨으로써 중첩 연쇄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박씨전〉에서는 인물이나 장소의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서사 내용의 의미로써 행위의 발현과정 축소, 비범함을 인정하는 대상의 확대 등으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법이 환상성의 구현에 기능한다고 보여진다.

- 76) 조혜란(앞의 논문)은 "〈전우치전〉의 환상은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서의 환상이 아니다. 물론 〈전우치전〉의 경우도 환상 발현 동기가 욕망 충족 및 문제해결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전우치전〉의 환상은 환상적인 이야기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혀 놓았다. 신세윤(앞의 논문)은 〈전우치전〉과 〈박씨전〉의 환상성을 비교하면서 그 특성중의 하나로 전자는 남성주의적 지향성, 후자는 여성주의적 지향성이라고 하였다.

사건의 진행과정

결 과

- | | |
|-------------------------|---------------------------------------|
| (16) 비단 · 술잔 도술 | 이웃 부인들이 박씨의 신이함에 놀란다. |
| (19) 기흥대 예측하여 물리침 | 명월부인으로 봉해짐. |
| (22) 호군의 침입 예측 | 임금을 피하게 하고 일가친척은 피화당에 피난시킴. |
| (23) 계화가 용울대 저지 | 용울대 자결하자 용골대가 침입. |
| (25) 계화가 왕대비 데려가지 못하게 함 | 호장은 세자 · 대군만 데리고 회군하고 박씨는 절충부인으로 봉해짐. |

위의 내용을 보면 도술 사건이 호적의 퇴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6)의 비단 · 술잔 도술은 박씨가 현실세계의 인물이 아니라 초현실세계의 인물이라는 징표이다. 대부분의 도술 사건이 호적의 퇴치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도술 행위로 드러나는 결과는 박씨가 ‘명월부인으로 봉해짐’, ‘절충부인으로 봉해짐’ 등으로 박씨의 위상이 격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은 박씨가 미모일 때의 도술 행위들로 전개 · 구성되어 있다. 즉 박씨가 탈갑-변신 후 행한 도술은 동일한 양상의 서술이 여러 번 반복되는 병치 패턴이다. 그런데 도술담의 반복 전개는 항상 같은 내용을 같은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서사단락 (16)에서와 같이 신화적 도술과 호적의 침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적절히 허구화함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반복식 구성은 고소설 독자의 독서 심미안을 만족시키고 서사적 긴장감을 피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고소설 작품에서 전장 군담의 경우 반복될수록 전쟁이 확대되고 심화된다.⁷⁷⁾

77) 김현주(앞의 논문, 97면)는 “〈유충렬전〉에는 이와 같이 전장 군담이 20여 개에 이른다. 전체적인 서술 분량을 따져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양 진영의 장수가 말을 타고 장검이나 장창을 들고 수합을 싸워 진 자의 머리가 마하에 떨어진다”는 공통적인

그런데 이 작품에서의 군담 즉 도술행위는 전란 수습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과 병자호란의 실사(實事)를 큰 굴절 없이 다루었다는 점에서 긴밀한 짜임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인 역사와 허구인 초현실이 결합하면서 병자호란의 실상과 결과를 큰 굴절없이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역사와 허구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 장치는 박씨의 도술행위와 피화당이라는 공간이다.

전쟁에 패하는 나라는 필연적으로 재물을 탈취 당하고 수많은 부녀자가 희생되게 마련이다. 특히 부녀자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무력함이나 무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즉 여성성이 민중성과 맞물리면서 그 힘의 전이는 배가된다. 이러한 역동성이 문학에서 현실 속에 중첩된 공간인 피화당이라는 관념의 공간이자 실천의 공간을 형상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추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남성시각의 잣대라는 인식과 함께 추모인 박씨를 통해 남성의 무능력함을 맹렬히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여성이 전쟁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것은 민중의 욕망이 한 여성에게 투영되어 형상화한 것이다. 여성을 통해 보여 준 민중적 욕망은 병자호란의 참상에 대한 극복의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중의 고통은 그 전란 체험을 신화적 환상으로 받아들인다. 즉 여성이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추모와 미모에 대한 신화적 잔영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중략)양 진영의 대결과 장수의 결투 방식, 그리고 군담의 귀결 방식 등 심층적인 서사 패턴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박씨전〉에서는 박씨가 탈갑-변신 후의 행한 도술이 반복 병치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씨가 역사적 사건인 병자호란을 퇴치하는 과정을 환상적으로 재현하였으며, 그 결과 또한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게 형상화하였다.

Ⅲ. 중첩성이 갖는 환상적 흥미와 주제적 구현

1. 민중의 대리만족과 보상심리

작가의 상상력은 현재의식을 반영한다. 민중들은 불합리한 현실이나 극한 상황에서 근원적인 의미로서 신화적 대상을 갈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고소설에서 신화적 대상이 인물의 성격에 투시되어 형상화 되었다면 그 인물의 성격이 곧 당대 독자의 욕망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 즉 신화적 대상을 갈구하는 것과 욕망은 근원적 의미에서 환상과 교접하고 있다.

삶에 있어서 환상이란 현실 생활에서의 결핍이나 욕구·욕망을 대리적으로 실현해 주는 기제로 작용한다. <박씨전>의 환상은 그 당시 민중들의 현실적 불만들을 허구적 인물인 여성을 통해서 해소해 낸 민중의 대리만족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당시 민중의 욕망이라는 것은 병자호란의 치욕적 패배와 그 이후의 모순된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박씨 계화로 웨여 왈, “무지헌 오랑키야, 너의 왕놈이 무지헌여 은혜 지국을 침범헌거니와, 우리 왕티비는 다려가지 못헌리라. 만일 그런 뜻줄 두면 너의등이 본국의 도라가지 못헌리라.”(212면)

② 박씨 우시며 이리변 꾸지져 왈, “그는 못헌리로다. 옛날 조양지는 지빅의 머리를 칠헌여 술잔을 만드러 진양성의 분헌물 씨셔 천츄만세의 유전헌엿스니, 이제 우리는 너의 아오 머리를 칠헌여 강화성의 분헌물 씨시리라.”(214면)

위의 인용문 ①은 호적 용골대가 회군하면서 왕대비와 세자 등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계화가 왕대비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다. 인용문 ②는 용골대가 아우 용울대의 머리를 달라고 하자 박씨가 거절하면서 강화성의 분함을 씻겠다고 호통치는 부분이다.

병자호란은 조선왕조의 무능과 통치를 맡은 사대부들의 이권다툼으로 말미암은 사상적 분열, 전쟁의 무방비 등에서 촉발된 것이었으나, 그 결과는 엄청난 희생을 초래하였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용골대와 마부대 등은 폐하가 된 조선 땅에서 재물을 빼앗고 부녀자들을 강탈했다. 한편 민중들은 강화로 인해 인질과 물질적 피해 등으로 막대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⁷⁸⁾

병자호란은 두 민족간의 전쟁이지만 피해의 실상은 조선의 여성에게 돌아갔고, 실절(失節)에 관한 문제는 유교 사회의 현실의 이론 기반으로서는 합리화 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전쟁으로 파괴된 상황에서 민중의 호국에 대한 적개심을 극도에 달했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전쟁의 체험을 여성을 통해 경험하려는 욕구가 민중에게 응집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청나라 태종이 직접 지휘하는 10만 대군은 그 집결지였던 심양을 떠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서울을 위협했다. 왕족의 일부를 강화도로 보내고 나서 왕이 미처 뒤따르기 전에 적군에게 길이 막혀 조선정부는 부득이 남한산성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청군은 곧 남한산성을 포위했다. 조선정부는 불과 50여일 분의 식량밖에 없는 산성에 갇혀 명나라에 원병을 요청했으나 멸망의 위기로 치닫고 있던 명나라는 원병을 보낼 수 없었다. 국내 각 지방에서 오던 원병도 모두 청군에게 해하여 남한산성 속의 조선정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왕족들이 피난했던 강화도도 청군에게 쉽게

78) 역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은 강만길(『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90), 정상진(『박씨전과 병란』, 『한국문학논총』 14, 한국문화회, 1993), 최소자(『호란과 조선의 대명·청 관계의 변천』, 『이대사원』 12, 이대사학회, 1975) 등의 논의를 참조한 것이다.

함락되었다. 산성에 고립된 조선정부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강화론이 대두되었다. 찬성자도 늘어가서 척화론자와의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가 최명길(崔鳴吉, 1586~1647)을 중심으로 하는 주화론(主和論)이 채택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인조는 청군이 삼전도에 만든 수항단에 나아가 청태종에게 3배9고두(三拜九叩頭)의 예를 행하고 무조건 항복했다. 항복을 받은 청태종은 조선의 청에 대한 군신례, 조선의 명에 대한 사대관계 단절, 왕자와 대신 자제 등의 인질, 세폐 납부, 경조사절 파견, 명나라 공격 때의 원병 파견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갔고, 이밖에도 척화론을 고집한 관리들을 비롯한 무려 50만 명의 남녀가 포로로 잡혀갔다.⁷⁹⁾

위와 같은 병자호란의 실상은 〈박씨전〉에서 대부분 나타나 있다. 특히 삼전도 항복에 대한 치욕은 대다수 민중에게 큰 정신적 타격을 주었다. 민중은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에 대한 대리만족이 필요했을 것이다.

청군의 침입은 왜군의 침입에 비하여 기간도 짧았고 또 국토의 일부만 전장화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편이었으나 청군이 거쳐간 서북지역은 약탈과 살육에 의하여 황폐하였다. 이로 말미암은 적개심에다가 문화적 우월감이 겹쳐서 전쟁이 끝난 뒤에도 조선의 청에 대한 반감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고조되었다.⁸⁰⁾

이러한 민중의 욕구는 작품의 후반부에서 박씨가 호적을 퇴치하는 부분에서 잘 드러나 있다. 우선 박씨가 호적과 처음 대립하는 것은 호왕비이다. 호왕비는 기흥대를 조선에 보냈으나, 박씨는 이미 첩자 기흥대의 존재를 예측하고 준비하였다. 또한 박씨는 용골대 형제에게 복수를 할 때에서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79) 강만길, 『고쳐쓴 한국근대사』, 2002, (주)창작과비평사, 62~63면.

80) 한국민중사연구회, 풀빛69 『한국 민중사』 I 전근대편, 1997, 도서출판 풀빛, 313면.

시비 계화를 시켜 대적함으로써 우월성을 보이고 있다.

민중은 전란 체험과 전란 후의 사회의 변화와 유교 현실의 지속이라는 중첩 구조 속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이 남성의 잣대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남성의 무능력함을 통해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여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박씨전〉에서 이러한 인식은 추모인 박씨의 우월성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박씨전〉에서 박씨의 능력은 호적을 퇴치하는데 확대될 뿐 아니라,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박씨전〉에서는 여성욕망의 발현과 민중적 욕구가 맞물리면서 민중의 대리 만족은 배가된다. 독서 향유자들은 이 과정에서 신화적 환상을 수용하게 된다. 추모 박씨라는 인물은 현실세계의 독자가 갈구하는 신화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씨가 피화당에서 도술로써 호적을 퇴치함으로써 독자들은 보상심리를 표출할 수 있다.

2. 여성 욕망의 발현과 유교적 이념과의 타협

환상적 사고는 실재에 대한 근대적 믿음이 붕괴한 데에서 기인하는 해체적 징후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적 현실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근대적 실재성에 기반한 구성 체계에 대한 회의이다. 그것은 다른 우주 세계를 구성하는 구성적 인식 체계이다. 따라서 세계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힘이다. 뿐만 아니라 잘 꾸며진 환상적인 이야기는 경험적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전이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⁸¹⁾ 따라서 환상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경험적 현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박씨전〉은 사회 문화적으로 중첩된 사회모순의 현실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조선후기는 임·병 양란을 겪으면서 기존의 세계관과 그것에서 이탈된 세계관이 서로 교차되고 혼호된 상태를 이루고 있는 시기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박씨가 여성이면서 영웅이라는 점은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작품에서는 용모의 추함과 아름다움, 탈갑-변신 전과 그 이후, 남과 여, 개인과 민중, 개인과 국가 등의 상반된 요소들이 상호 긴밀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① 도한 시뻘을 불너 꾸지져 왈, 디범헌 스람이 덕을 모르고 식만 취호면
신상의 복이 업고 집안이 망허니, 네 이제 박씨를 얼골이 곱지 안타 호여
구박허니, 범절이 일어호고 엇지 슈신제가 호리요(154면)

81) 김성룡(c), 앞의 논문.

② 그날 밤뭇털 너방의 드리 거쳐허라 호고 드리가면, 박씨의 얼굴을 보
미 문득 취비헌 마음이 과연 동침할 듯 업서, 한편 구석의 등도라 안저다
가 나와 다른 방의 즈고, 계명 후면 붓친 계신디 문안하니(154면)

위의 인용문 ①은 시부 이득춘이 박씨를 박대하는 이시백을 꾸짖는 내용이다.
이시백은 자신이 불효함을 깨닫고 박씨와 거쳐하려고 하나 인용문 ②에서와 같
이 박씨의 추한 얼굴을 보면 동침할 뜻이 없어진다.

① 오날날 신부는 너 집의 복이라. 엇지 식만 취호고 덕을 모로이요. 쏘
우리 부부 만일 분안이 억이면. 즈식과 집안을 어더케 조섭호리요(152면)

② “슬프다, 너는 진실노 영웅호걸이라. 남즈 되어든들 무슴 근심이 잇스
리요.(167면)

위의 인용문 ①은 이득춘의 부인이 박씨의 용모가 추함에 대해서 남부끄럽게
생각하자 이득춘이 타이르는 장면이다. 즉 이득춘은 박씨가 집안에 복을 가져올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 ②는 이득춘이 박씨가 불행할 때를
대비해 피화당을 가꾸는 모습을 보고 신기함에 탄복하면서 남자가 아님을 안타
까워하는 부분이다.

〈박씨전〉은 위에서처럼 서로 상반된 행동을 통해 숨김과 드러남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여성 욕망의 발현과 남성독자나 당대독자를 인식한 표현의 틀을
함께 가지고 있다.

〈박씨전〉은 추녀로 설정된 박씨가 ‘美’에 대한 인식 차이로 빚어진 가정 내
에서의 갈등을 극복하고 ‘탈갑-변신’과 신이한 능력으로 호적을 퇴치한다는 내용
이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이미 환상성을 내포하고 있는 표지들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겉으로 드러난 서사 내용 외에 인물, 공간, 사건을 통해서 환상적 기법과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박씨의 추모, 피화당이라는 공간, 도술로써 나타나는 박씨의 활약상 등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권사회에서 '여성'이 타자에 위치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갖는 환상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 욕망의 발현조차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권사회 속에서 태동하고 있다고 하겠다.

① 박씨 꿈을 꾀여 괴이회 여겨 연못가의 가보니, 전의 업든 연적이 노엿 거날, 가져다 계화로 하여곰 서방님께 잠간 드리오리물 청흔디, 시백이 계화를 꾸지져 왓.(170면)

② “첩은 듯스오니, 디장뵈 입신양명하여 부모게 영화를 뵈고 느라의 충성으로 섬기며, 또한 옛말의 임군 섬기는 날은 만코 부모 섬기는 날은 적다 하니, 첩이 혼가지 가면 부모는 뉘가 섬기리잇가. 첩은 이곳데 잇서 부모를 뵈셔 봉양호오리니, 감스는 부디 평안이 도입하여 정스를 잘하여 위국보충호소서.”(186면)

③ “느는 박부인의 시비여니와, 우리 아씨 명월부인이 조화를 배푸러 너를 기다린 지 오런지라. 너는 극흔 도적이라. 썰니 목을 느리여 니 칼을 바드라.”(206면)

위의 인용문 ①은 박씨가 시비 계화를 시켜 남편에게 연적을 전하는 부분이다. 인용문 ②는 남편 시백이 평안감사로 떠날 때 박씨가 시백에게 동행하지 동행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부분이다. 인용문 ③은 나라에 위기가 닥치자, 계화가 호적 울대에게 도술을 부리는 내용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박씨의 활약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박씨는

남편으로 하여금 관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활약하고 있고, 또 호적에 대항하여서는 직접 나서지 않고 대부분 계화를 통해서 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권사회의 지속과 여성욕망의 발현이라는 변화의 중첩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작품의 기법적인 측면이 환상성에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살펴볼 때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위의 II장에서 분석하였듯이 추모와 미모의 중첩성은 추모에 대한 인식의 거부와 탈갑-변신에 의해 획득된 미모에 대한 고도의 환상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다음의 공간의 중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환상은 공간의 전이과정을 통해 더 잘 드러나고 있다. 공간 영역 피화당은 축소·고정화를 이루면서 현실의 규방의 의미와 초현실의 신념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 또 사건의 구조에 있어서 박씨의 도술 행위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비범함을 알리는 대상이다. 그러나 발현과정은 여성 개인이므로 정체성 찾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탈갑-변신 후에 박씨의 도술 행위의 과정은 반복·병치되면서 호적의 퇴치라는 목적성을 띠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 결과들은 박씨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박씨의 비범함을 알리는 대상이 남성이라는 점과 박씨가 도술을 발휘함으로써 박씨가 위상이 격상되고 결말부분에 여중군자 칭호를 받는 것은 당대 독자 또는 중세이념의 틀을 인식한 수사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⁸²⁾ 그리고 작품 전반에서 天意, 天時, 天命, 天機 등의 운명

82) 남은경(앞의 논문, 64면에서 재인용)은 “1836년 남편인 坦齋 尹光演에 의해 문집인 『靜一當遺稿』가 편찬되었는데, 정일당 강씨(1772~1832)에 대한 평가를 보면 남성의 정신적 동반자로서의 ‘여성군자’, ‘여성영웅’의 면을 살펴볼 수 있다. 탄재는 그 아내 정일당의 죽음을 절통해 하면서 그 아내가 바로 자신의 정신적 지주이며 진정한 동반자였음을 고백하고 있다. 당대 벼슬을 하던 친지들이 써 준 14편의 만장과 행장 속에는 당대 남성들의 정일당에 대한 평이 나와 있는데, 그들 역시 정일당을 덕과 재를 두루 갖

론적 세계관을 인식하는 용어가 박씨의 행위를 축소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⁸³⁾들이 있다. ‘천의’ 등의 용어는 당대의 문학적 관습 행위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박씨가 남성을 통해 신분이 상승된다는 것과 ‘천의’ 등의 용어의 사용이 여성성의 한계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당대의 문학적 관습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환상 문학을 단순히 현실에서 벗어난 신비한 세계에 대한 상상이나, 초월적인 이차 세계로 보는 것은 환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문학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특히 환상문학은 문화적 억압이 야기하는 결핍을 보상하려는 욕망의 문학이기 때문이다.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흔히 여성은 타자화되고 주변화된다. 이것은 지배적인 세계관의 규범을 강화시킨다는 식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사의 한정적인 제약에 저항하는 억압된 여성적 목소리와 욕망이 표현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춘 ‘여중군자’, ‘女士’로서, 남편 탄재의 ‘師友’였다고 찬양하고 있다.”고 밝혀 놓았다.

83) 백명자(앞의 논문, 68~69면)는 “ ‘천의’, ‘천수’, ‘천운’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천의’로 집약될 수 있으며, 국가의 운명적 수난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는데, (중략)현실의 패배에 대한 합리화이며, 정신적 위안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천의사상이 국가의 위기를 위기대로 받아들이므로써 현실을 극복하고 정신적 위기의 절망 앞에서 용기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진형 (『〈박씨전〉의 이데올로기적 구조 -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이데올로기 적 대응-』, 『고소설의 사적 전개와 문학적 지향』, 반교어문학회, 보고서, 2000, 315-341면)은 “천의는 儒家에게 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천의’에 대하여 남은경(앞의 논문, 68면)에서는 “ ‘천기’는 18세기 중인층 문인들이 자신들의 문학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썼던 중요 용어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로 볼 때 ‘천기’나 ‘천의’가 〈박씨전〉에 쓰여진 것에 대하여 이데올로기 또는 문학적 관습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지며, 좀 더 깊은 고찰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박씨전〉은 역사적 사건인 병자호란을 토대로 허구를 수용하면서 환상적 흥미를 가미한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은 박씨가 추모로 인해 박대를 받다가 탈갑-변신함으로써 미모를 되찾고, 전란에 도술로써 호적을 퇴치한다는 내용이다. 즉 이 작품에서 탈갑-변신은 표면적인 환상 표지이자 중첩의 기점에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이미 환상성을 내포하고 있는 표지들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겉으로 드러난 서사 내용 외에 인물, 공간, 사건을 통해서 환상적 기법과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먼저 II장에서는 현실과 초현실의 중첩성이 인물, 공간,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구조로 기능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II장의 1절에서는 이 작품에 남아있는 신화적 잔재와 유교적 표상이 서로 중첩됨으로써 유교 현실 원리 안에서의 민중적 욕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박씨가 추모에서 미모로 탈갑-변신함으로써 '낮설게 하기'와 '놀라게 하기'를 중첩시키고 있다. 즉 추모로 인한 인식의 거부·전환은 현실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이탈 장치인 '탈갑-변신'을 통해서 획득하는 미모는 초현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성과 감성의 중첩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물의 중첩성은 도술이 연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심화된 인물의 성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신화적 인물과 도술만을 허구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을 적절히 허구화하여 무력한 남성과 무능한 국가를 형상화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박씨가 신화적 존재라는 것을 더욱 더 확연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러한 환상적 흥미는 개인적 욕망의 발현에서 민중적 욕망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다.

II장의 2절에서는 박씨를 중심으로 표면적인 공간 전이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축소된 공간이 고정화되면서 여성욕망과 민중의 욕망이 중첩되면서 서사 전개가 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II장의 3절에서는 개인적 욕망에 따른 사건은 연쇄적으로 전개되어 있고, 민중적 욕망에 따른 사건의 전개는 병치적으로 전개되는 서사패턴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II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첩성이 갖는 대중적인 흥미가 주제로 구현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첩성에 내재한 환상성이 여성욕망과 민중의 욕망을 아우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작품의 서사구조는 ‘인물-사건-공간’에서 현실과 초현실이 교접하면서 중첩된 의미가 환상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의 환상적 흥미는 독자의 정서적 미감과 서사기법으로서의 구조가 함께 기능하고 있다. 고소설에서의 현실세계와 초현실세계는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주인공은 꿈이나 이계로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박씨전〉은 중첩적인 구조로 환상적 흥미를 발생시킨다. 특히 박씨의 도술담은 중추적인 행위, 즉 하나의 지향점을 향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념의 목적성도 발견된다. 그러나 선불리 현실세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작품은 패배한 전쟁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역사인식으로 창작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은 인간이 처한 현실과 삶의 모순이나 결핍을 채워서 정신적인 조화와 충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박씨전〉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체제의 중심부에서 배제된 채 가정이라는 주변부에만 머물렀던 여성의 유교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박씨가 가지고 있는 신화성은 민중의 대리만족을 환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임을 드러내

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연구는 다른 도술소설이나 신선류소설, 도교적 성향이 뚜렷한 작품들과의 영향관계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자료

김기현 역주, 「박씨전」(고대본),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 1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김대숙, 「우부현녀설화와 박씨전」,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94.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서울 一湖閣, 1971.

김일렬 역주, 「던우치전」(신문관본),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 25,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숙향전 송하」, 『한국고대소설총서』, 이화여대도서관소장, 1958.

장덕순 編, 「장화홍련전」, 『한국고전문학전집』, 희망출판사, 1978.

2. 단행본

강만길,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90.

———,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2002.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김경수·김성룡 공저, 「고전 서사문학을 중심으로 본 환상의 미학적 특성 연구」, 『한국고전비평』, 중앙대학교출판부, 1995.

김미란, 『한국소설의 변신논리』, 태학사, 1998.

김성룡, 「고전소설의 환상 미학」, 양포이상택교수 환역기념, 『한국 고전소설과 서

- 사문학』(상), 집문당, 1998.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도서출판 길벗, 1994.
- 로지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전복의 문학』, (주)문학동네, 2002.
- 박희병, 「『금오신화』의 소설미학」,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들베개, 1997.
-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 조희웅, 「한국 서사문학의 공간관념」, 『고전소설연구』, 정음문화사, 1984.
- , 『설화학강요』, 정음문화사, 1989.
- , 고전소설 연구자료총서Ⅱ, 『고전소설 작품연구 총람』, 집문당, 2000.
- 차용주, 『몽유록계 구조의 분석적 연구』, 창학사, 1979.
- 최진형, 「〈박씨전〉의 이데올로기적 구조 -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이데올로기적 대응-」, 『고소설의 사적 전개와 문학적 지향』, 반교어문학회, 보고서.
- 최운식, 『심청전 연구』, 집문당, 1982.
- 최원오, 「한국 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위계 전변과 윤리의 문제」, 『동아시아 여성 신화』, 동아시아고대학회, 집문당, 2003.
- 한국도교문학회, 『도교문학연구』, 푸른사상사, 2001.

3. 논문

- 강상순, 「고소설에서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제 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 경일남, 「박씨전의 불교적 성격」, 『어문연구』 14, 충남대 어문연구회, 1985.
- 김기현, 「박씨전 연구」,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4.
- , 「박씨전의 텍스트와 명칭문제」, 『우리문학연구』 9, 1992.

- 김귀석, 「고소설에 나타난 시비의 특성과 기능」, 『한국언어문학회』 제39집, 1997.
- 김나영, 「신화적 관점으로 본 〈박씨전〉 소고」, 『고소설연구』 제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 김미란, 「박씨전 연구」,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 「박씨전과 변신의 모티브」, 『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 , 「고대소설에 나타난 변신모티브 연구」, 연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 김성룡, 「한국고전소설의 환상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 「고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 김장동, 「박씨전 논고」, 『한양어문연구』 3, 한양대 한양어문연구회, 1985.
-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교주『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 김현희, 「박씨전의 주제 연구」, 한국교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남은경, 「18, 19세기 漢詩·文에 나타난 여성형상-여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11집, 동양고전학회, 1998.
-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1~13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 민병수, 「한문소설의 삼입시에 대하여」,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 박명순, 「조선후기 전쟁체험 신선류소설의 응전논리」, 『한국언어문학』 제38집, 한국언어문학회, 1997.
- 박옥빈, 「香娘고사의 문학적 연변」,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박윤재, 「박씨부인전 이본고」, 『어문논집』 1, 중앙대, 1960.
- 박은숙, 「조선조 애정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금향정기〉, 〈숙영낭자전〉, 〈채봉감별곡〉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 2003.

박희병, 「『금오신화』의 소설미학」,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백명자, 「박씨전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85.

사재동, 「〈박씨전〉의 형성과정」, 『장암지현영선생고회기념논총』, 대구:동간행위
원회, 1980.

성현경, 「여결소설과 ‘설인귀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62-63, 국어국문학회,
1973.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환상적 표상의 몇 가지 층위」, 『성심어문논집』 25집,
성심어문학회, 2003.

신동일, 「이조 전쟁소설 박씨전 연구」, 『육사논문집』 6, 육군사관학교, 1968.

신성환, 「낮설게 읽기의 새로움-최근 소설들에 나타난 환상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 언어문화』 제1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1.

신세윤, 「고전소설 속의 환상성 연구-「전우치전」과 「박씨전」을 중심으로」, 인하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신태수, 「〈박씨전〉에 나타난 현실과 이상의 관계」, 『영남어문학』 25집, 1994.

———, 「고소설의 공간에 대하여」, 『영남어문학』 28, 영남어문학회, 1995.

심치열, 「숙향전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3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97.

윤경수, 「고소설과 국조신화의 변신모티프 연구」, 『비교문화연구』 9, 부산외국어
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88.

이문규, 「〈박씨전〉의 미학적 고찰」, 『태릉어문연구』 5·6, 서울여대, 1995.

이원수, 「〈박씨전〉에 나타난 여성관」, 『어문학』 제71집, 한국어문학회, 2000.

이정미, 「박씨전의 서지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이종은 외, 「한국문학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학 논문집』 제28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 장일구, 「서사적 공간론의 이론과 실제」, 『서강어문』 13집, 서강어문학회, 1997.
- 정맹섭, 「삼한습유」의 연구-香娘설화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원논문, 1987.
- 정명기, 「여호결계소설의 형성과정연구」,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정상진, 「인물중심으로 본 박씨전의 구조와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8·9, 한국문학회, 1986.
- , 「박씨전과 병란」, 『한국문학논총』 14, 한국문학회, 1993.
- 정재서, 「《山海經》의 소설적 수용(1)-동방삭에서 보르헤스까지-」, 『중국어문논집』, 중국어문연구회, 1998.
- 정정현, 「박씨부인전 연구-추모 모티브와 피화당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림어문연구』 7, 창원대 국어국문학회, 1990.
- 정하영, “월매의 성격과 기능”, 「고전소설 연구의 방향」, 『한국고전문학연구회』, 새문사, 1985.
- 정학성, 「몽유록의 유형적 특질과 역사의식」, 『관악어문연구』 2, 1977.
- , 「몽유담의 우의적 전통과 개화기 몽유록」, 『관악어문연구』 3, 1978.
- 趙種業, 「고전소설과 한시」,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 조혜란, 「민중적 환상성의 한 유형-일사본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 최기숙, 「귀신의 처소, 소멸의 존재론-『금오신화』의 ‘환상성’을 중심으로」, 제24차 『돈암어문학』정기학술발표대회, 2003.
- 최소자, 「호란과 조선의 대명·청 관계의 변천」, 『이대사원』 12, 이대사학회, 1975.
- 최진형, 「박씨전의 이념적 구조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7, 성균관대, 1996.

ABSTRACT

Overlap of Realism and Surrealism in *Bakssiyeon* and Its Meaning

-Centering on a Fantasy-

Yeo, Jeong-suk

Major in Korea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Literature makes good disclose of human life in the real world and human desire to experience the surreal world. An ancient novel in particular has relatively remarkable establishment of real and surreal worlds. Since the two worlds can generally be differentiated through dream or death, the ancient novel innately premises a fantasy.

A fantasy in an ancient novel can be seen through a meaning and symbol of a sanctified place. It is frequently found in a fantastic structure including a romance and Taoist works. That is, by achieving what cannot be realized in the real world in the surreal world, it also has an inseparable relation with the theme of the entire work. Among other Taoist magical novels, *Bakssiyeon* realizing historical war experiences in detail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previous fantastic literature.

Bakssiyeon describes the life of Park who has wondrous and unusual ability. And the work has dichotomous fantastic marks, such as ugliness

versus beauty, pre-masking-transformation versus post-masking-transformation, man versus woman, and historical reality versus fiction. The fantastic marks in an ancient novel usually can be read through discussion on a fantastic structure, holy places, and fantastic materials. To the contrary, this work realized fantasy by overlapping opposite elements: real and surreal ones. In addition, the overlap of realism and surrealism functions as a certain narrative technique. It is therefore possible to say that the overlap of realism and surrealism serves to reveal the contemporary real life and theme beyond the superficial overlap.

The contemporary real life can be the combination of social shock due to two wars and signs of socio-cultural change in the Chosun Period. There coexisted people's pains and conscious awakening and the realistic Confucian principle to suppress them in late Chosun society. In other words, the society showed coexistence of change and continuity of the contemporary world view. This contradictory reality particularly demands women of double precepts. Such a contemporary life is realized as a fantasy in *Bakssiyeon*.

Park, who is a fictitious character, is an ugly woman who has a different intention from heroines in other ancient novels. As a woman who is very different from the beauty in the real world, she swallows cold treatment around her. Park is a character who save the country from a crisis after she becomes an absolute beauty through masking-transformation. In this process, male characters who are historically actual persons show poor activity. In addition to Park, the work has a lot of female characters

including Gihongdae. Park as a mythical character beats off barbarians' attack by means of Taoist magic, and other female characters different from actual historical ones make her remarkable ability stand out.

This work has Pihwadang as well as Geumgangsán as a surreal place. Pihwadang is the place where Park shows Taoist magic actually after she has been to Geumgangsán. That is, it is the fixed place where she defeats barbarians with Geumgangsán as the starting point. By setting a surreal place in real one, Lee Si-baek's house, it is setting an ideal place different from that in the generalized surreal world in an ancient novel. That the Taoist magic performed in Pihwadang is representation of actual war experiences has a practical and realistic meaning.

The fantastic narrative technique in this work is more certainly revealed through development of events besides the spacial structure and characters. The events mostly develop through narration of Taoist magic, which is performed by a female character, Park. The Taoist magic before masking-transformation comes to the end when Park becomes a beauty in the real world. That after masking-transformation develops with Park's status enhanced in the real world. In other words, the chain and juxtapositional structure of events shows the tight combination of people's proxy satisfaction through Taoist magic and women's reality in the Confucian society.

Therefore, this work shows coexistence of continued men-centered Confucian society and the change of expressing women's desire. And people's hope to overcome the misery of the Manchu Invasion is reflected

in the work through the mythical character, Park.

A fantastic literature is not simply the outcome of daydream, fancies, or imagination but concrete realization of our unconsciousness. A novel can make paradoxical representation of dreams to overturn the reality as well as simple representation of a real situation. Then, the writer of this work describes femininity, or women's value of being, which can be represented in the contemporary social conditions through a literary work. From the fact that the work was a popular novel among common people in the late Chosun Period, readers could have realized expression of women's desire as well as enjoying fantastic pleasure.